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책임자 : 이 승 진





---

## ■ 연구책임 및 집필

이 승 진(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6
1.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특성	6
2. 영역별 예술영재의 특성	15
3.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특성	28
III. 국외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례	30
1. 독일	31
2. 영국	44
3. 미국	58
IV.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69
1. 영재키움 프로젝트	69
2.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77
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2
4.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93
5. 시사점	100
V. 결론 및 제언	102
1.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의 기본 방향	102
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방안	104
3.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활성화 방안	109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10
참고문헌	112

# 표 목 차

<표 II-1> 소외계층 유형별 성공사례의 배경 및 성공요인 .....	13
<표 II-2> Webster의 음악적성 요인의 속성 .....	16
<표 II-3> 미술영재성 관련 선행연구 .....	20
<표 II-4> 미술영재의 특성 .....	22
<표 II-5> 뛰어난 무용가의 속성요인 .....	26
<표 II-6>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유형별 특징 .....	28
<표 III-1> 국외 사례 분석 근거 .....	30
<표 III-2> 독일의 영재지원모델 .....	32
<표 III-3> 독일 WoW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체계 .....	38
<표 III-4> 독일 Talent im Land 프로젝트 학생 지원 체계 .....	39
<표 III-5> 영국 격차해소 프로그램(NtG) 개요 .....	48
<표 III-6> 영국 소외계층 영재학생의 교육격차해소 교육과정 분석표 예시 .....	49
<표 III-7>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	54
<표 III-8> 영국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기회 .....	56
<표 IV-1>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주체별 역할 .....	71
<표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역량기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예시 .....	72
<표 IV-3>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교사 활동 절차 .....	74
<표 IV-4> 영재키움 프로젝트 체험/진로탐색 프로그램 예시 .....	75
<표 IV-5>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77
<표 IV-6> 2019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지원자격 세부기준 .....	78
<표 IV-7> 2019년도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분야별 실기시험 안내 .....	79
<표 IV-8>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과제 현황 .....	82
<표 IV-9>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추진체계 .....	85
<표 IV-10> 예술꽃 씨앗학교 연도별 사업 참여 학교 현황 .....	85
<표 IV-11> 예술 꽃 씨앗학교 운영 로드맵 .....	87
<표 IV-12> 예술꽃 씨앗학교 우수 학교 사례 성과 요약 .....	88
<표 IV-13>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기관 현황 .....	91
<표 IV-14> 국내 소외계층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	92

<표 IV-15>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내용(안) .....	94
<표 IV-16>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추진 체계 .....	96
<표 IV-17>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학생 선발 절차 .....	97
<표 IV-18>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관리·점검 사항 .....	98
<표 V-1> 방학 중 캠프 활동 구성(안) .....	106
<표 V-2> 진로체험 활동 절차 .....	107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절차 .....	5
[그림 II-1] 미술영재 개념의 복합성 .....	19
[그림 II-2] 미술영재성 개념 모형 .....	20
[그림 II-3]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 .....	24
[그림 II-4] 발레 영재성 구성요인의 계층 구조 .....	24
[그림 II-5] 무용영재성의 4가지 요인 .....	27
[그림 III-1] 원헌영재모형 .....	32
[그림 III-2] 독일 롤란드 베르거재단의 소외계층 영재 지원 체계 .....	36
[그림 III-3] 영국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체계 .....	44
[그림 III-4] 영국 소외 영재교육 '격차해소프로그램'도식도 .....	49
[그림 III-5] 미국의 각 주별 영재교육정책과 예산지원현황 .....	60
[그림 IV-1] 영재키움 프로젝트 추진 기본방향 .....	70
[그림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도 .....	71
[그림 IV-3]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교급별 교육과정 체계 .....	74
[그림 IV-4] 영재키움 프로젝트 2019 창의융합캠프 프로그램 일정(안) .....	76
[그림 IV-5] 예술꽃 씨앗학교 2019년 지역별·분야별·학교급별 지원현황 .....	86
[그림 IV-6]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의 목적 .....	89
[그림 IV-7]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주요 역할 .....	91
[그림 IV-8]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로드맵 .....	91
[그림 IV-9] 2019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	95
[그림 IV-10]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지원 내용 .....	98
[그림 V-1]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	10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가정의 돌봄 기능의 약화,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가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요소로 대두되었다. 특히, 교육소외·교육격차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 주어야 할 집단을 의미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는 용어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논의된 개념인데(주현준, 오세희, 2011), 이를 영재교육에 적용해 보면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대상자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류지영, 김미진, 2017).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 소외영재, 소외 계층 영재라고 일컫는 이들은 잠재적 영재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영재교육에 접근이 어려워 영재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잠재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정에 속한 학생들은 경제적 빈곤이나 지역적 고립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교육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매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부진이나 학습부진으로 저평가 되기도 하며(김혜숙, 2009),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즉, 비행, 공격성, 위축, 신체증상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정익중, 2009; 하태정, 강현아, 2012; Duncan & Brooks-Gunn, 1997). 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장기간 제공된다면 그들의 재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미숙, 2008; 김성혜, 2012, 2014; 김성혜, 이경진, 2014; 김지혜, 2016; 김혜숙, 2009; 박숙희, 2009; 석문주, 2015; 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 이선영, 2010; 이

승진, 2017; 이승진, 이유진, 최선일, 2018; 이재분, 유경재, 여승수, 김아름, 2011; 이신동, 이경숙, 2017).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영재교육은 소외계층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교육인적자원부, 2004)의 일환으로 2005년 「영재교육진흥법」이 개정<sup>1)</sup>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공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잠재적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정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과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8-’22)」에서도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는 영재교육의 주요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2016년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방안」에서도 소외계층 대상 영재교육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외계층 영재 발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정부(교육부, 2019)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도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추진성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희현, 2017).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8-’22)」에서는 리더십 영재캠프 및 멘토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교육부, 2017), 소외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체제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학, 과학, 정보,

---

1)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2항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이승진, 2017, 재인용)

인문사회 분야 대상자만으로 한정되어 모집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 분야는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들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실질적인 예술영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이 가능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와 음악, 미술, 무용, 전통 영역별 예술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국외 소외계층 영재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및 관련사례, 그리고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을 위한 실천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 및 영역별 예술영재의 특성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먼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특성과 음악, 미술, 무용, 전통예술 등 영역별 예술영재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 나. 국외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례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및 현황에 대한 국외 사례를 탐색하였다. 독일, 영국, 미국 등 각 나라의 영재교육 기본방향 및 지원체제, 주요정책 및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

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숨어있는 잠재성을 발견하려면 해당 예술분야의 교육적 경험 또는 문화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다.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우리나라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지닌 학생에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했던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 사업들의 운영 체계와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예술영재 뿐만 아니라 수·과학 분야에서의 소외영재 지원 사례도 포함시켰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라.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 체제 모형 구축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고찰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특성과 음악, 미술, 무용, 전통예술영재의 특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정책보고서, 학술지 등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 나. 국내·외 사례 분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실천했던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자료, 정책보고서,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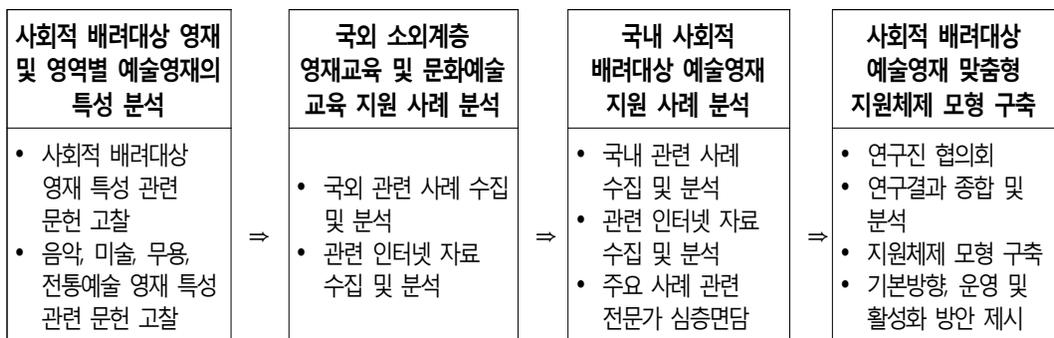
## 다. 심층 면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배려대상 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 사업을 수행했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비구조화된 면담자에 의한 개별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라. 연구진 협의회

본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주요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원내 연구진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협의회 참석자 구성은 본원에 소속되어 있는 원장 1명, 책임연구원 2명, 일반연구원 2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I -1]과 같다.



[그림 I -1] 연구의 절차

## Ⅱ.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특성<sup>2)</sup>

최근 계층 간 교육 격차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커짐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이 형성되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을 의미하며(주현준, 오세희, 2011),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능력이나 소질이 아닌 장애, 빈곤, 거주지 등과 같은 교육 외적인 조건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영재교육 분야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등과 같은 교육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잠재능력을 계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계발시켜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김미숙, 2006)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200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무 규정을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제2항<sup>3)</sup>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2항<sup>4)</sup>에 신설하였다. 이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을 통해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지역·문화적 요소만으로 범주화했던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확대시켰다. 즉, 여러 가지 교육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영

2) 해당 내용은 이승진(2017)의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함

3)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집단을 ‘소외계층 영재’라고 명명하고, 그 유형을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지리적으로 영재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벽지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 이탈주민,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학생들까지를 모두 포함시켰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개념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명시된 소외계층 영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이들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각 유형별 특성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 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환경에 속한 영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환경에 속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영양섭취가 부족하여 아동기에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인지·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아동기의 빈곤은 지능지수에 큰 영향을 미쳐 낮은 학업성취도와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성인기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McLoyd, 1998; Michael & Dodson, 1978). 한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일부 우수한 아동들의 인지적, 사회·정서 측면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빈곤가정임에도 우수한 아동들은 일반 영재와 비교하여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이 높아 실제 문제해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개방적인 과제, 현실적 사고력이 필요한 과제, 융통성과 유창성이 필요한 과제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Tileston, 2004; VanTassel-Baska, 2003). 뿐만 아니라 이들은 창의적이며, 말로 표현하는 것과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다양한 학습방법, 협동적이고 비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혼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

5) 해당 내용은 김미숙(2008)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함

으며 독립적·비순응적 특성을 나타내며, 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ileston, 2004; VanTassel-Baska, 2003; Tomlinson et al., 1997).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 영재아동의 지적능력과 사회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 자체 보다는 낮은 소득을 갖게 한 부모의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Mayer, 1997; 이재분 외, 2011). 즉,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의 차이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 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익중,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환경에 속한 영재학생들이 영재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이유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게 갖는 기대,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등으로 인해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재분 외, 2011). 따라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환경에 처한 잠재성 있는 영재를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려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다문화 가정에 속한 영재

다문화 사회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의 유입 및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한국 사회 내에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이신동, 이경숙, 2016, 재인용).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하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인 경우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에 속한 학생들의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에는 49,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 수가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7,225 명으로 7년 간 14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 속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

습자료, 교수방법, 상담지원 등의 교육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에 속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지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영재가 가진 독특한 인지·사회·정서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중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 나아가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다. 지역적으로 영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영재

지역적으로 영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 상 소규모 학교 크기, 낮은 인구밀도, 부족한 재정, 교원수급 부족 등으로 인한 질 높은 영재교육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Colangelo, Assouline, Baldus와 New(2003)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벽지의 영재들은 문화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방법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많은 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이 심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며 가족과 지역자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영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영재들의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계발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의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 라. 장애를 가진 영재

최근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주로 이들이 가진 장애에

만 초점을 두었으며, 이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보다 특별한 영재성에 관해서는 관심을 부족했다(김동일 외, 2007). 장애를 가진 학생은 영재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가진 장애에 집중하여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예술적 능력, 인지적 능력 등은 그 장애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영재는 그들의 재능이나 영재성이 아닌 장애가 먼저 인식되는 경향으로 인해 이들은 장애가 없는 아동들보다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영재가 교실에서 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장애에 의해 적절한 성취가 발휘되지 못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수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교사나 부모들 또한 장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그들이 특별한 영역에 영재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 잠재된 재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is(2004)에 의하면, 장애영재는 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s syndrome), 학습장애 혹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영재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이재분, 2011). 그러나 이러한 특정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서만 영재성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중증장애를 제외한 다양한 장애영역에서도 영재성을 함께 지닌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문태형, 2003).

학습장애를 가진 영재는 눈에 띄는 신체적 장애가 없고 학업수준도 평균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숨겨진 ‘소외된 장애 영재’로 불린다(김동일, 2003). 이들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특정 기능에서는 부족하지만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영재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장애를 가진 영재들은 특정 기능에의 미성숙으로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계속되는 실패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장애를 가진 영재들에게는 교수전략을 수정하여 적용한 도구들을 사용한 적응 기술과 같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Fox et al. 1983).

ADHD의 행동특성이나 반응양식과 영재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ADHD영재가 충동적이고 분열적인 과잉행동을 표출하는 원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등의 환경적 자극과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간의 부조화 때

문이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정서나 감정을 조절의 어려움 등 정서적으로 미숙한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인지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비인지적 능력 간의 내적 비동시성(asynchrony)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ADHD영재들에게는 충동적인 과잉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들의 높은 인지능력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심리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마. 북한이탈주민 영재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sup>6)</sup>을 말하며, 이들 중 청소년 연령 집단인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청소년이라고 일컫는다.<sup>7)</sup>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 이들은 법률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2005년부터 집계된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431명에 불과했던 탈북청소년 학생 수가 2019년에는 2,531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이탈하여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제약을 갖는다. 그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또한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불안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이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하면서 생긴 장기적인 교육 공백과 남북한 학제의 차이, 교과목과 교육내용의 차이, 학교풍토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이향규, 2011; 한만길, 2009). 이러한 차이로 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7)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hub/edu/understand.do>

해 이들은 기초학력미달자로 보여지기 쉬우며 학교 성적으로는 담임교사의 관찰 추천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건에 있다(이재분, 2011). 대학입학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탈북 대학생 4인을 대상으로 학습법을 공개한 언론기사(신동아, 이은영기자, 2008. 08. 25)에 따르면,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물리·화학 같은 기초과학 과목은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언어영역(국어), 사회탐구영역에서는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차이가 커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이재분, 2011). 바꾸어 생각하면 탈북청소년들 중에서 수·과학, 예술분야 등 특정분야에 잠재성을 지닌 숨어있는 영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들의 기초학력미달이나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데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안 마련 등 향후 높은 성취 가능성을 지닌 숨겨진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 바.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영재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영재란 사회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분야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영재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한다(김미숙, 2008, 재인용).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하려는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교육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영재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재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재교육 기관의 지역적 편차 때문에, 특정 영역에 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에 많은 영재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결여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들을 소외계층 영재의 한 유형으로 보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재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얻는 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

외계층 유형의 학생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II-1>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킨 몇몇 성공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이재분, 2011).

<표 II-1> 소외계층 유형별 성공사례의 배경 및 성공요인

소외계층 유형	사례	배경	성공요인	출처
저소득층 및 도서·벽지	공부가 제일 쉬운 장승수	생계로 늘 바쁘던 중에 문득 미래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면서 공부 시작함	자기통찰, 공부에 몰두	법률저널 (2011.6.17)
	실업계 골든벨 소녀 김수영	어느 날 문득 신문을 보면서 자신을 위해 불면의 밤을 지낸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문제만 일으켰던 생활을 청산하고 공부를 시작함	자기통찰, 공부에의 몰두	스포츠경향 (2011.3.28.)
	외진 시골 마을 영어 신동 박은미	지역에 위성방송이 들어오면서 디즈니 만화와 미국시트콤을 봄. 대사를 듣고 입으로 따라 하며 기억하려 한 높은 흥미와 동기가 있음. TV속 인물과 대화하는 감정이입과 몰입의 경험	방송통신의 지원, 흥미, 몰입경험	국민일보 (2005.3.29.)
	시골 외딴 곳에서 피아노에 눈을 뜨게 된 김기석	말을 배우기 위해 매일 가게 된 피아노학원 선생님의 재능발견, 돌봄, 피아노에 대한 열정, 지속적인 연습 관리	배움의 기회, 교사의 재능발견, 돌봄, 동기 부여, 연습 관리	뉴스엔연예 (2009.1.19.) 및 KBS 인간극장
북한이탈주민가정	탈북대학생 첫 봉사동아리 '승실다움' 만든 김금주	자신과 같은 처지인 탈북 청소년 공부를 돌보는 기회를 접하면서 스스로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한국일보 (2011.3.31.)
	2001년 입국하여 영화감독으로 성공한 탈북자 출신 김규민 감독	우연하게 북한 소재영화에 연출부에 들어가게 될 기회를 얻음, 편견과 차별로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과 충실한 업무수행	우연한 배움의 기회, 긍정적해석, 충실성	머니투데이 (2011.6.30.)
	제73회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남한의학사의 꿈을 이룬 정성일	북한에서의 의사 직업을 인정해주는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 오로지 이 길 밖에 없다는 인식과 몰입, 그리고 주변에 남한에서 의사로 일하는 멘토들의 지원	법적 지원, 강한 내적 동기, 사회적 지원	세계일보 (2009.2.1.)

소외계층 유형	사례	배경	성공요인	출처
다문화 가정	부드러운 리더십, 박칼린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예술방면에 관심이 많아 연극반 특별활동에 열중함	흥미	위키백과 및 데일리안 (2010.10.24.)
	슈퍼볼의 영웅, 하인즈 워드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어머니의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교육 방침	부모의 교육방침	위키백과 및 경향신문 (2006.1.23.)
	문화의 잡식가, 안나 수이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는 옷을 인형에게 만들어 입히며 보냄	흥미	네이버백과 사전 및 두산백과
장애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유예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서 놓고 3세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임. 하루 두시간 이상을 피아노 곁에서 보내고 수백여곡의 클래식 악보를 외움	조기의 물리적 환경, 부모의 재능 인식 및 지원	운명보다 강한 열정 (김창수 저)
	시각장애 강영우 박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정상인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사회	비차별, 국가 및 사회적 지원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저)
	서번트 증후군 미술영재 문지수	사회성, 언어성 발달장애에 대한 미술치료로 미술 영재성 발견됨	강점지능의 발견	뉴시안 (2008.12.9.)
	자폐성 장애 음악영재 송선근	생후 30개월 진단, 소근육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피아노 학습, 지속적인 연습, 자폐를 극복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전문 상담일을 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	조기 장애진단, 연습, 부모의 지원	KBS 사랑의 가족 (2009.8.10.)

출처 : 이재분(2011)에서 재인용

이상의 성공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교육 외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지녔지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 그리고 부모나 해당 분야의 중요한 타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재분, 2011)

## 2. 영역별 예술영재의 특성

### 가. 음악영재<sup>8)</sup>

성경희(2005)는 일반적으로 음악영재란 음악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음악적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음악적 잠재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천적으로 계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최고 수준으로 발현시키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영재의 특성과 음악영재성에 관한 선행연구(성경희, 2003, 2005; 이미경, 2006; 원영실, 2013; 최은식, 2003)를 살펴보면, 음악영재성은 음악성 외에도 창의성이나 정의적 특성 요인들과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 1) 음악성의 특성

음악영재성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음악적성검사를 개발 및 활용함에 있어 무엇이 음악적성을 구성하는 요인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을 음악적성의 핵심능력으로 간주하는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철학적 관점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음악성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보는 관점(Seashore, 1939, 1960)으로 음을 들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며 음악적 재능은 하나로 통합된 재능이 아닌 각각 독립된 여러 개의 음악적 재능이 모인 결정체라고 보았다<sup>9)</sup>. 두 번째로는 음악적인 맥락 안에서 음의 역동적인 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을 음악성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Gordon, 1988)으로, 가락, 리듬, 화음, 템포, 프레이징, 스타일, 음색 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음악영재성은

8) 해당 내용은 성경희(2005), 이승진(2017)의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 함

9)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음악적성검사에서는 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음의 높이, 음의 길이, 음의 강도, 음색 등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측정한다(성경희, 2005).

이러한 요소들의 역동적 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이라는 관점이다<sup>10)</sup>.

하지만 이렇게 상반된 철학적 관점을 기초로 개발된 음악적성검사 도구의 구성 요인들을 살펴보면, 음악영재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① 음(tone)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순수한 청각-음향학적 지각능력에 관한 영역, ② 박, 템포, 다양한 리듬의 기억 등을 포함하는 리듬영역, ③ 프레이징, 스타일, 밸런스, 셈여림, 좋은 리듬이나 프레이징의 선택 등의 표현이나 해석과 관련한 영역으로 유사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창의성의 변인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영재의 특성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며 음악예술 행위 자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창의성의 주요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Webster(1989)는 음악영재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음악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음악적성 요인의 속성을 <표 II-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2> Webster의 음악적성 요인의 속성

구분	속성	특징
확산적 사고	음악적 확장성 (musical extensiveness)	창의적 상상을 위해 보낸 시간의 정도와 관련
	음악적 유연성 (musical flexibility)	다이내믹, 템포, 음높이 등을 토대로 음악적 표현을 다룬 정도와 관련
	음악적 독창성 (musical originality)	평범하지 않은 독창적인 표현이나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관련
수렴적 사고	음악적 구문 (musial syntax)	음과 리듬에 대한 변별력과 음악의 전체를 파악

출처 : 이승진(2017)에서 재인용

10) 여기에는 리듬이나 가락 등을 기억하는 능력과 더 좋은 프레이징에 대한 변별력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성경희, 2005).

이러한 음악적성 요인은 상당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도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라 잠재된 재능의 발현 시기, 정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고난 재능이 사장될 수도 있다.

### 3) 정의적 특성

강한 과제에 대한 집중력, 학습 동기 및 의욕, 지속력, 인내심, 자신감, 자율성과 리더십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은 음악영재성에만 국한되는 속성이 아닌 일반 영재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이다. 정의적 특성 또한 선천적인 타고나는 요소도 있지만, 경험과 훈련에 의해 후천적인 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발이 중요하다.

### 4) 종합 및 시사점

음악영재성은 음악성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정의적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에 있어서의 창의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음악영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타고난 선천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후천적인 교육이나 경험에 의해 충분히 계발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음악적 재능이 나타나지 않은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의 잠재적 재능 발굴과 교육 및 환경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영재의 발굴과 교육은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중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은 음악적성은 물론 지적·정의적 발달과 함께 음악적 개념의 이해 능력이나 구성 능력들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주에 필요한 큰 근육과 섬세한 작은 근육의 발달이 급격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타고난 잠재적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음악영재를 발굴·육성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나. 미술영재<sup>11)</sup>

### 1) 미술영재 개념의 복잡성

미술영재란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영재부터 잠재성은 있지만 그 능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적 영재까지를 포함한다(김춘미 외, 2006). 김선아(2017)는 미술영재의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미술영재성의 개념이 갖는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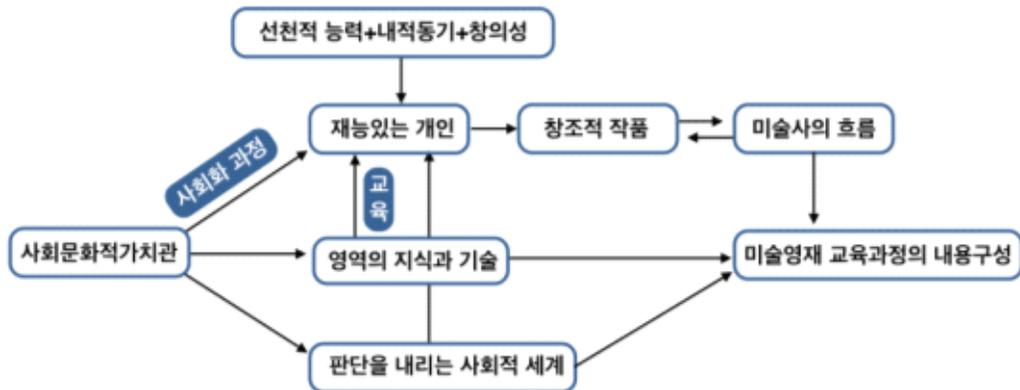
첫째,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미술영재성은 아동기에 그 일부만 나타나며 영재성 발현의 시기, 방식, 성과 등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김선아, 2017). 어린 시절 뛰어난 영재성을 나타냈던 Conti, Somerville, Yani 등이 성인이 되어 남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던 반면, Heri Rousseau나 Paul Gauguin처럼 성인이 되어 늦게 미술을 시작했음에도 성공한 경우도 있다(강주희, 2018).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미술영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취보다는 잠재성을 발굴하고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미술영재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김선아, 2017). Pariser(1997)는 미술영재를 “다양한 상징체계를 혼합하거나 문화적 체계를 학습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을 강조했던 기존의 미술영재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미술영재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Pariser, 1997). 또한 이러한 관점은 미술영재가 개인의 잠재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체계가 밀접하게 관련됨을 주장하는 Csikszentmihalyi(2003)의 체제 이론과도 관련이 깊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주희(2002)는 잠재가능성에 초점을 둔 미술영재성의 다차원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즉, 미술영재를 정의함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개인이 가진 선천적 능력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 그 외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미술 영역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

---

11) 해당 내용은 김선아(2017)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육과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통한 사회화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식화된 설명은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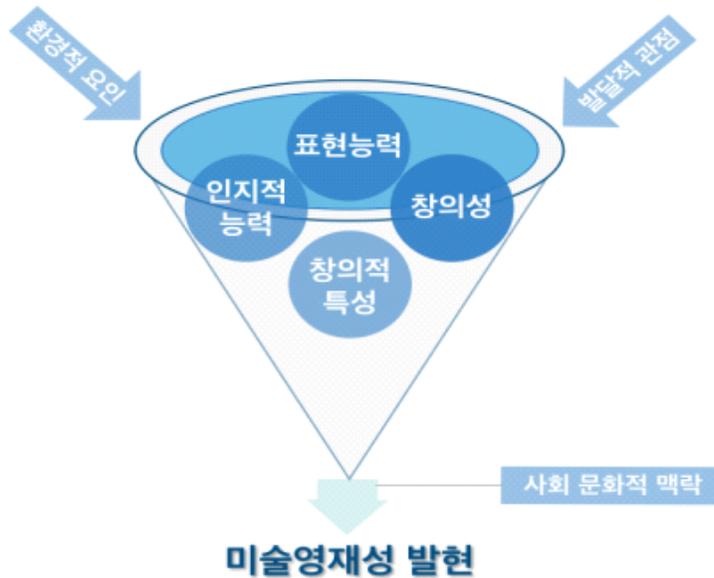


출처 : 우주희(2002)에서 재인용

[그림 II-1] 미술영재 개념의 복잡성

셋째, 미술영재성은 개별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해, 미술영재가 영재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규칙이나 방식으로 일반화하여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김선아, 2017). 따라서 일반화된 공통된 특성보다는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미술영재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년간의 관찰과 심층면접을 토대로 미술영재의 특성을 도출한 김정희(2017)의 연구는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박명옥(2017)은 미술영재교육원 초등학생 영재가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섭적 사고를 미술영재성 발현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이는 미술영재의 특성이 미적 표현능력 이외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술영재성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미술영재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II-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출처 : 류지영 외(2016)에서 재인용

[그림 II-2] 미술영재성 개념 모형

## 2) 미술영재의 특성

미술영재는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그 특성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나타나며 발굴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태로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강주희, 2012; 김정희, 강병직,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영재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미술영재성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방법	준거	특성
Hurwitz (1983)	경험 연구	행동적 특성	조속성, 뛰어난 드로잉, 집중력과 인내심, 자기주도성, 미술에 흥미, 유창성, 활용능력
		작품의 특성	사실적 묘사, 구성능력, 복잡성과 정교함, 기억력, 재료활용능력, 즉흥표현

연구자	연구 방법	준거	특성
Lowenfeld & Brittan (1987)	경험 연구		유창성, 감수성, 직관적 상상력, 매체사용능력, 표현의 직접성
Gardner (1993)	역사분석 연구	행동특성	뛰어난 미술적 표현력, 독창성, 비판적 사고, 분별력
		선천적 특성	색채감각, 형태인식능력, 공간감, 그리고 질감에 대한 민감성
Clark & Zimmerman (2004)	문헌연구 경험연구	-	훌륭한 드로잉 솜씨, 뛰어난 인지능력, 흥미, 동기
Johnsen (2004)	문헌연구	일반특성	예술에 대한 흥미, 자발적 노력, 인내와 집중, 스스로 기술 습득, 감수성, 타인의 작품에 대한 관심, 실험적인 매체 사용, 자신감, 높은 목표
		미술적 특성	조속성, 복잡성, 구성, 관찰력, 응용력, 독창성, 매체사용능력, 동세와 리듬감, 색채감각, 조형요소 표현능력, 창의적 표현, 드로잉을 즐김
이용애 (2004)	문헌연구 타당도 검증	인지능력	미적 지식, 시각적 기억능력, 시각적 회상능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	표현기술, 정교성, 조직능력, 모사능력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동기	흥미, 태도, 집중력, 상상력, 인내력, 심미성, 민감성, 호기심
김정희 (2005)	문헌연구 경험연구 역사분석	작품 특성	화면구성, 색과 형태, 주제와 재료, 표현력, 표현기술
		일반적 행동특성	예술에 대한 감각, 자신감, 독립심, 리더십, 호기심, 뛰어난 인지능력 등
		미술적 행동특성	독창적 아이디어 실체화, 패턴이나 규칙의 발견, 퍼즐, 그림에 대한 관심, 조형놀이 즐김, 동기 등
한국예술 영재학회 (2006)	문헌연구 경험연구	-	발달된 감수성,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활동력과 동기, 집중력, 표현에서의 유창성과 정교성
오레지나 (2007)	문헌연구	-	표현력, 예술적인 감수성, 창의성, 예술적인 깊이
한수연 (2009)	문헌연구	-	예민한 감각, 자유로운 발상, 매체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새로운 문제에의 도전감, 과제에 대한 열정

연구자	연구 방법	준거	특성
백중열 (2010)	경험연구	미술영재 그림 특징	독창성, 조속성, 원근법, 화면구성, 독립성, 색채감각 등
김동철 (2011)	경험연구	일반 특성	학년별로 다름
		미술적 행동특성	표현능력(화면구성력, 색과 형태 인식력, 창의적 표현력), 공간지각, 조형능력, 창의성, 태도 및 흥미
류재만 외 (2011)	문헌연구 경험연구	-	조형능력, 창의성, 유창성, 감수성, 공간지각능력

출처 : 김선아, 2017, 재인용

미술영재의 특성은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인 인지적 능력, 표현 능력, 창의성, 정의적 특성과 같은 내재적 특성과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발달적 관점 등이 외재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재적·외재적 특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김선아, 2007). 미술영재의 내재적·외재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미술영재의 특성

구분	특성	세부 내용
내재적 특성	인지적 능력	공간지각능력, 미술적 지식, 비판적 사고, 시각적 능력
	표현 능력	사실적 묘사 능력, 화면구성, 매체활용능력, 색채 표현
	창의성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다른 사람과 다른 독창적 표현, 풍부한 상상력 등
	정의적 특성	미술에 대한 흥미와 몰입, 높은 동기 수준, 주체적 사고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태도
외재적 특성	환경적 요인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	미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세계와 사회문화적 가치관
	발달적 관점	영재성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이 재능으로 발현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까지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개별적 성장 발달에 따른 과정적 접근

출처 : 김선아(2017) 재구성

종합하면, 미술영재성은 타고난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 맥락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므로 이러한 미술영재성의 복잡성과 맥락성, 개별성과 다양성에 근거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선아, 2017, 재인용).

#### 다. 무용영재<sup>12)</sup>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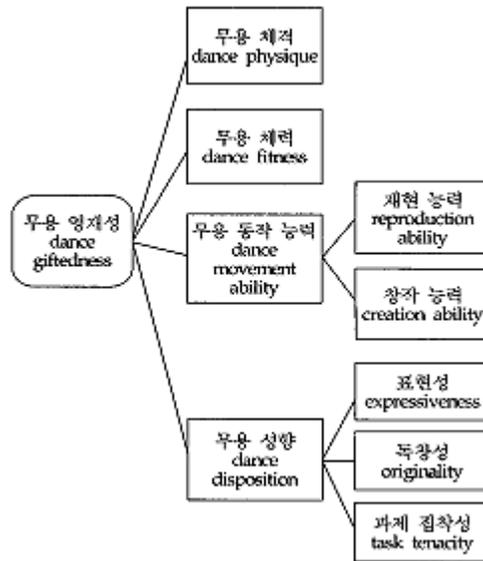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무용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의 각 분야가 무용과 융합되어 수행되는 종합적인 예술이다(이미경, 2006). 무용영재와 무용영재성에 대한 이해는 최근 영재를 단일 요인에서 다중요인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함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을 영재로 정의하는 개념에서 이루어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이진호, 2017, 재인용). 무용영재의 개념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은숙(2003)은 ‘발레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발레 영재는 신체운동능력, 신체적 조건, 표현력, 청음능력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신체운동능력에서는 유연성, 순발력, 뛰기, 돌기 등 4가지의 영역에서 탁월해야 하며, 신체적 조건에서는 발레 영재에게 부합한 이상적인 체격조건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발레 영재는 테크닉의 경험이 없더라도 표현력에 있어서 뛰어난 표현 능력이 잠재되어 있으며, 발레 예술에서 음악은 동작의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고, 선율을 통해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뛰어난 청음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2004)은 무용영재를 ‘무용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무용영재성을 네 개의 요인 즉, 무용체격, 무용체력, 무용동작능력, 무용성향 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구성

12) 일반예술에서의 ‘무용’영역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구분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무용영재교육에서는 ‘발레’ 영역만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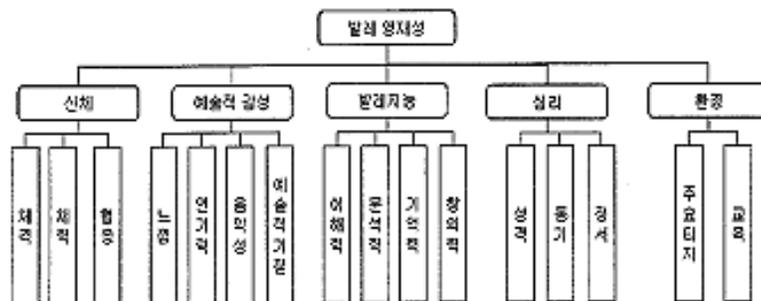
요인을 무용 체격, 무용 체력, 무용 동작 능력, 무용 성향 네 가지의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그림 II-3].



출처 : 오레지나 외(2003)에서 재인용

[그림 II-3]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

조주연(2007)은 발레 영재에게 요구되는 요소를 신체요소, 예술적 감성, 발레지능, 심리적 측면, 환경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그림 II-4].



출처 : 조주연(2007)에서 재인용

[그림 II-4] 발레 영재성 구성요인의 계층 구조

즉, 무용수는 관객들에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시각적인 언어 전달자이기 때문에 신체의 아름다움과 움직임 기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체력적인 능력, 분위기에 적합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감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하는 무용지능 요소들의 조화가 무용영재성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간주하였다.

유진과 조정아(2006)는 Bloom(1985)의 재능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발달 수준에서 예외적인 무용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재능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이해력, 창의력, 표현력, 무용열정 등 18개 재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인지요인, 정서요인, 동기요인, 신체적요인, 움직임 유능성요인, 사회적 지원요인의 6개 차원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재능요인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감정표현력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모든 발달 과정에서 우수한 무용수행을 보이는데 중요한 재능요인으로 고려된 반면에 고등과 대학 수준에서는 인지 요인과 움직임 유능성 요인이 초등과 중학생 수준에서는 동기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재능발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등(2006)은 무용영재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들에 비해 뛰어난 무용적 재능이나 잠재적 능력을 보이는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무용영재성은 네 가지 요소 즉, 신체적 조건, 예술적 감성, 정의적 특성, 무용지능으로 구성된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각 요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적 요소, 무용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신체가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술적 표현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체격과 체력 그리고 원하는 동작을 적절한 순간에 구현해 낼 수 있는 협응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응 능력은 예술적 표현의 극대화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체조건은 무용영재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동작을 구현하고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동작 조정력과 민첩성도 무용에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다. 둘째 예술적 감성, 무용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적 감수성이 다른 예술 영역들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다수의 무용영재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준 높은 신체운동지능이나 개인 내 지능은 신체 동작을 통해서 사람과 대상,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술적 감수성은 감정표현력, 음악에 맞춰 동작을 구현할 때 필요

한 박자 인식 능력, 리듬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리듬감, 즉흥적 표현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의적 특성은 개인 내 특성들 즉, 관심, 열정, 의지, 몰입, 노력, 인내심, 자신감 등을 포함한 무용에 대한 높은 동기 수준,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양성성, 완벽주의, 비판적 성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용은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가 동작을 만들고 표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정의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인 무용지능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동작과 기술에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데 필요한 감정이해력 및 분석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능력으로써, 미적 직관력, 미적이해력,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 정확한 시공간 지각 능력, 움직임에 대한 이해력, 움직임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기억력), 관찰력 등의 세부 능력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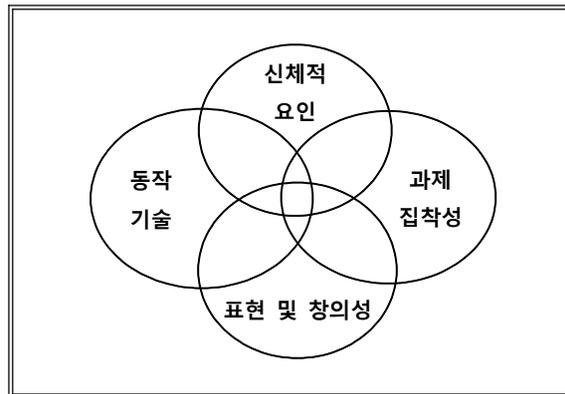
오레지나(2009)는 새로운 무용이미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과 태도인 무용창의성의 개념을 토대로 무용영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뛰어난 무용가의 속성요인 탐색을 통해 도출된 4가지 요인 즉, 무용신체성, 무용동작성, 무용창의성을 무용영재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표 II-5>

<표 II-5> 뛰어난 무용가의 속성요인

구성요인	하위요인	내용	
무용신체성	무용체격	무용가 신체의 해부학적 변인	
	무용체력	무용가 신체가 지닌 모든 성질의 종합	
무용동작성	무용기술력	무용기술의 정확한 수행능력	
	무용표현력	무용동작으로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능력	
무용창의성	내적 요인	움직임 감각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움직임으로 반응하는 능력
		심미적 감각	미(미)에 반응하는 능력
		무용사고력	무용 이미지를 만드는 상상적 사고력
		무용작품 구성능력	심미적 감각을 기초로 한 선택, 구성 조합능력
	무용태도	무용의 관점에서 보려는 삶의 자세	
외적 요인	예술체험	예술양식에 의한 다양한 경험	

출처 : 오레지나(2009)에서 재인용

이진효(2010, 2011, 2012)는 무용영재 판별과 관련된 연구에서 ‘무용 영재란, 현재 춤을 잘 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춤을 잘 출 수 있는 가능성 즉 「뛰어난 잠재적인 무용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인으로 Renzulli의 3가지 요인(능력, 창의성, 과제집착성)과 더불어 신체적 조건이 포함된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출처 : 이진효(2010, 2011, 2012)에서 재인용

[그림 II-5] 무용영재성의 4가지 요인

다른 영역보다 특히 무용영재교육에서는 조기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정희자, 2004; 오레지나, 2009; 이진효, 2010, 2011, 2012; 원영실, 2013). 왜냐하면 무용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골격과 근육이 적절히 발달하고 균형 감각과 유연성의 조절 능력이 적당한 8~9세이기 때문이다(정희자, 2004). 발레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세 이전인 8~9세 때 재능이 발현되어 10대에 전성기를 누린 후 20~30대에 이르러 점차 쇠퇴기를 겪는다(이진효, 2010) 그리고 무용영재성 역시 타고난 신체적 조건, 예술적 감성, 정의적 특성, 무용지능 각각의 요소들이 제대로 인식,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적 지원이 갖추어져야 그 재능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 3.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특성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는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가 겪는 환경적·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예술영재의 독특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려면,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가 겪는 환경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영역별 예술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혜(2012)는 사회적 배려대상과 영재라는 특성을 가진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에게 <표 II-6>과 같은 공통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II-6>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유형별 특징<sup>13)</sup>

유형	정의	특징
사회. 가정에서의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li> <li>▪ 급식면제자</li> <li>▪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가정의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낮은 언어수행 능력</li> <li>▪ 교육기회불균등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li> <li>▪ 심리적 불안감</li> <li>▪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적음</li> <li>▪ 부모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와 대우로 부정적인 자아인식 형성</li> </ul>
문화적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li> <li>▪ 국제결혼가정의 자녀</li> <li>▪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상적인 거짓말을 만들어 냄</li> <li>▪ 상황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찾아냄</li> <li>▪ 토의시간에 독특한 질문을 함</li> <li>▪ 주목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냄</li> <li>▪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함</li> </ul>
지리적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으로 영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가정의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과 이유를 알고 하는 호기심이 강함</li> <li>▪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높음</li> <li>▪ 예술에 대한 능력</li> <li>▪ 평균 이상의 신체적 협응능력</li> </ul>

13) 김성혜(2012)는 김미숙 외(2009)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술영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유형과 세부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자료임

유형	정의	특징
장애로 인한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지적 활동과 정에서 문제를 가졌지만 특정영역(수학, 예술, 언어 등)에서 현저하게 높은 잠재력을 가진 아동</li> <li>▪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예술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와 영재성을 동시에 가져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높음</li> <li>▪ 낮은 자존감과 유능감</li> <li>▪ 자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li> <li>▪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적</li> <li>▪ 사회와 교사의 낮은 기대감</li> <li>▪ 또래로부터의 소외</li> </ul>
역사적 상황에 의한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탈하여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신에 대한 놀림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큼</li> <li>▪ 학교생활과 교유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li> <li>▪ 남한학교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낌</li> <li>▪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li> <li>▪ 자신감 상실</li> <li>▪ 낮은 학업성취도</li> </ul>
학교에서의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장애영재</li> <li>▪ 학습부진영재</li> <li>▪ 잠재영재</li> <li>▪ 대다수의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같은 외부적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과 관심이 부족함</li> <li>▪ 가정과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고취할만한 환경과 자극이 결핍되어 있음</li> <li>▪ 동기의 결핍 및 낮은 자존감</li> <li>▪ 학습전략과 자기학습능력 부족</li> </ul>

출처 : 김성혜(2012)에서 재인용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물리적·심리적 요소들과 예술영재성으로 인한 인지적·정의적 특성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재능 발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이러한 장애요인을 문제점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그 요인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 그들에게 잠재된 영재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김성혜, 2012, 재인용).

### Ⅲ. 국외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례

본 장에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 및 현황에 대한 국외 사례를 탐색하였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가 자신이 가진 잠재성을 발견하려면 해당 예술분야의 교육적 경험 또는 문화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사례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례에 대한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국외 사례 분석 근거

대상	영역	세부 내용
독일 영국 미국	소외계층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교육 기본방향 및 지원체제</li> <li>▪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배경</li> <li>▪ 소외계층 영재교육 정책</li> <li>▪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사례</li> </ul>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li> <li>▪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및 사례</li> </ul>

## 1. 독일<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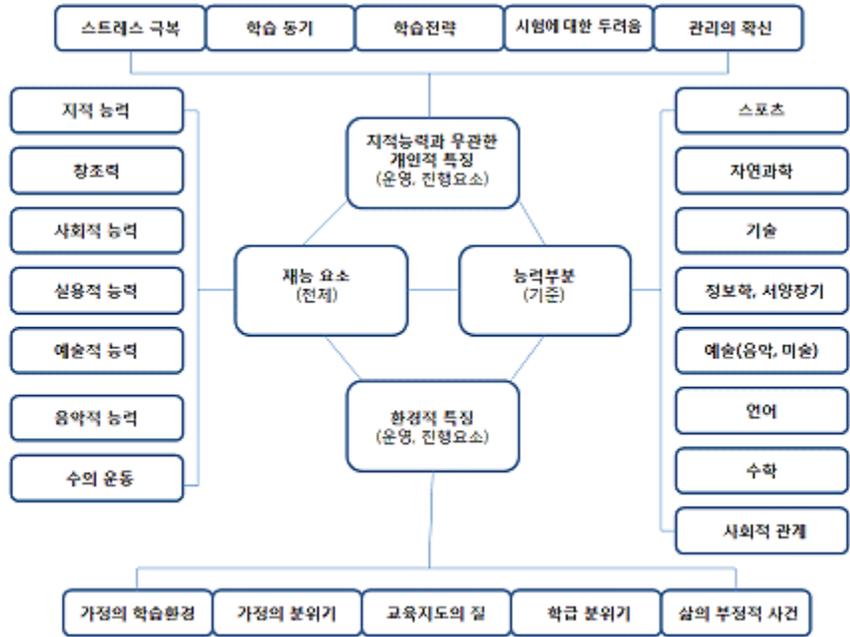
### 가. 독일 영재교육 기본방향

#### 1) 독일 영재교육 지원체계

독일에서는 전체 학생의 2% 이내에 속하는 매우 뛰어난 영재를 의미하는 ‘Hochbegabte’와 일반 영재를 의미하는 ‘Begabte’라고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영재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독일 교육 정책에서의 ‘영재’는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육지원이 요구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 학교교육 체계 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 아동과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영재아동에 대한 특별지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는 영재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빠른 학습능력, 풍부하고 복합적인 고도의 인지능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이며, 이런 능력은 자기주도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자기주도학습은 학교에서 영재의 잠재된 재능을 최상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Fischer, 2009).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영재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림 III-1]의 Heller와 Perleth(2007)의 뮌헨영재모형이 독일 영재교육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영재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연방교육과연구부는 ‘뮌헨영재모형’을 기반으로 <표 III-2>에 제시된 ‘영재아동 지원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속진학습, 심화학습, 혼합형태로 구분하여 독일 연방 주들의 영재교육 운영에 기초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14) 본 절은 한국교육개발원(2008), 이재분 외(2011), 강병직 외(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5)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출처 : Heller & Perleth(2007), 이재분 외(2011)에서 재인용

[그림 III-1] 원형영재모형

<표 III-2> 독일의 영재지원모델

속진학습	심화학습	속진과 심화의 혼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입학</li> <li>▪ 혼합연령 학급, 유연성 있는 학년</li> <li>▪ 월반</li> <li>▪ 고학년에서의 부분 수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li> <li>▪ 학습공동체</li> <li>▪ 추가 심화학습</li> <li>▪ 연방 또는 주 학생 평가 대회</li> <li>▪ 대학, 기업과 협력</li> <li>▪ 학생교환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과정</li> <li>▪ 속진학급</li> <li>▪ 다국어 학교</li> <li>▪ 특별학교, 영재학교</li> <li>▪ 조기 대학 입학</li> </ul>

출처 : 독일연방교육과연구부(2010), 이재분 외(2011)에서 재인용

독일의 학교 교육은 교육자치권 원칙에 의거하여 주 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연방교육부는 주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영재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주 정부 차원에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 북서부 주들은 일반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보충하여 실시하는 반면, 독일 남동부 주들은 영재를 위

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은 대학의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주들은 영재를 개별 지원하거나 일부 사범대학 내에 영재교육학과 개설 등 다른 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영재지원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주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주제에 관한 학생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영재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재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영재지원재단, 연방 학부모협회, 영재와 영재지원 독일협회 등도 독일 영재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독일 연방정부 영재지원 프로그램 유형

독일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독일 학생 아카데미, 다양한 대회를 통한 재능발굴,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첫째, 독일 학생 아카데미는 연방 대통령의 책임 아래 연방교육과연구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여러 재단의 기부와 협조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17일 동안 열리는 독일 학생 아카데미는 수학, 자연과학, 언어, 인문과학, 음악, 미술, 수사학 등 다양한 주제로 과정이 개설되며 참가자들은 원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극, 견학, 합창, 스포츠, 외부강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독일 학생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김나지움 상급학년(10학년) 이상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능력이 우수하거나 동기가 높아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연방이나 주 정부 능력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학생들을 선발한다.

둘째,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대회를 통한 재능발굴에 힘쓰고 있다. 즉, 자연과학, 수학, 인문·사회, 음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 연구하다’(Jugend forscht), ‘청소년 음악하다’(Jugend musiziert), 수학 올림피아드, 외국어 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유사한 재능을 가진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셋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직접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기회 향상을 위해 학생의 능력과 무관하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능력에 따른 장학금은 정부지원을 받는 재단을 통해 지원되지만, 장학생 선발 시 소득 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나. 독일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배경 및 정책

독일에서 소외계층이라 하면 크게 이주민, 경제적 빈곤층,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독일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배경이 교육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나라 중에 하나이다. 대학을 졸업한 부모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83%인 반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노동자 부모의 자녀들은 대학 진학률이 23%에 그쳤다(Berger, Roland, 2009)는 통계수치는 지난 수십년간 교육확대 정책으로 독일의 평균 교육수준과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향상은 부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은 영재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재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선발되는 경우가 적는데(Giesinger, 2008), 이는 일반적인 학교 문화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습관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에 기인한다(Gomolla & Ratke, 2002). 또한 문화적·경제적 하위계층의 아동들은 동일한 인지적·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도 과소평가 받는 경우가 많다(Bos et al., 2003). 독일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sup>15)</sup>까지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도 다양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외계층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

15) 2005년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대학의 등록금 징수를 허락하자 다수의 주들에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들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이재분 외, 2011)

특별한 지원 없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아동을 고려한 영재 지원 정책이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은 선발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독일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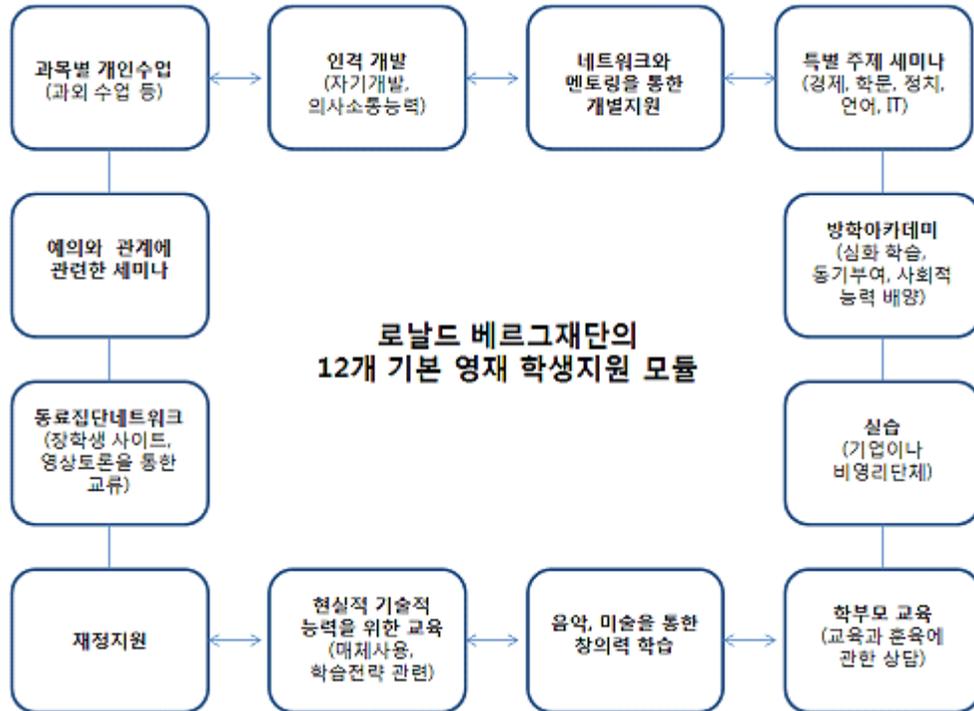
### 1) 로날드 베르거 재단 장학 프로그램: Fair Talent

‘Fair Talent’는 도이치 은행이 후원하고 롤란드 베르그재단<sup>16)</sup>이 운영하고 소외계층 영재 지원 프로그램으로 헤센, 작센, 튜링엔 주에 거주하는 6세에서 19세의 소외계층 가정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 잠재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롤란드 베르거 재단의 소외계층 영재 학생 지원체계는 12개의 기본 모듈 즉, 과목별 개인수업, 인격개발, 네트워크와 멘토링을 통한 개별지원, 특별주제 세미나, 재정지원, 현실적·기술적 능력을 위한 교육, 음악, 미술을 통한 창의력 학습, 학부모교육, 예의와 관계에 대한 세미나, 동료집단네트워크, 방학아카데미,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III-2]와 같다.

---

16) 로날드 베르거 재단(Roland Berger Stiftung)은 2008년 로날드 베르거 석좌 교수가 설립한 독립적 공익재단으로, 로날드 베르거 석좌 교수가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의 소중함을 깨달아 인간 존엄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자신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기회를 향상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재분 외, 2011).



출처 : 이재분 외(2011)에서 재인용

[그림 III-2] 독일 롤란드 베르거재단의 소외계층 영재 지원 체계

[그림 III-2]의 12개의 기본 모듈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니즈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Fair Talent 프로그램에서의 핵심은 멘토를 활용한 멘토링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멘토는 학교, 가정, 재단과 영재 학생 간의 중개자로서 영재로 선발된 장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동기를 갖게 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관리를 위해 베를린 자유대학의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 2) 소외계층 밀집지역 영재 지원 프로그램: WoW 프로젝트

WoW 프로젝트는 Wissen oder Was의 약자로 한국어로 의역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너의 미래를 만들어라’라는 의미로, 로타 & 인그리드 험스호른 재단(lothar & ingrid hemshorn stiftung)과 함부르크 주 정부 교사교육과 학교개발 연구소가 협력하여 운영<sup>17)</sup>한다. WoW 프로젝트는 함부르크 주에 있는 소외계층 밀집지역 공립학교 영재 아동들이 참여할 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 교과 과정과 관련이 있는 학교교육 심화 프로그램으로, 수업의 내용과 주제를 심화 학습하고 영재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소외계층 밀집지역의 학교에는 이주 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높는데, 이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매우 낮아 능력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주 가정 학생들이 영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WoW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 선발은 원칙적으로 교사 추천을 통해 선발하지만 부모나 학생이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관련 주제를 전공한 대학생, 해당 지역 전문가, 은퇴한 인력 등을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용한다. 프로그램 책임자들은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동기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함부르크 주 교사교육과 학교개발연구소 영재교육 상담기관에서 결정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자연과 학과 기술 관련 능력, 의사소통과 토론 관련 언어능력, 의사소통관련 매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능력, 경영·경제학 관련 수학적·공간적 능력, 미술, 연극, 음악 관련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개인별 재능영역에 적합하도록 복합적으로 운영되며 각 프로그램의 교육 결과는 학교에서 부모, 친구, 교사들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요가, 명상, 견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WoW 프로젝

17) 험스호른 재단의 주요 역할은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컨셉을 개발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영재상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함부르크 주정부 교사교육과 학교개발 연구소의 주요 역할은 WoW프로젝트가 의미있고 효율적인 컨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한다(이재분 외, 2011).

트에서의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 체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독일 WoW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분	내용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들은 재능영역에 적합하도록 조직된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방향	자연과학과 기술 관련 능력, 의사소통과 토론 관련 언어능력, 의사소통 관련 매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능력, 경영, 경제학 관련 수학적, 공간적 능력, 미술, 연극, 음악 관련 능력을 함양한다.
운영방식	프로그램은 복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 이 외 휴식과 문제 해결에 관련한 요가, 타이치, 명상기술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프로그램 관련 견학 프로그램도 있다. 각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여자가 학교에서 부모, 친구, 교사들에게 발표한다.
프로그램 책임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련 주제를 전공한 대학생, 실업자, 퇴직자나 관련 직업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담당한다. 프로그램의 책임자들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동기와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사적 경험과 그 결과들을 공유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함부르크 주 교사교육과 학교개발연구소 영재교육 상담기관에서 결정한다.

출처 : 이제분 외(2011) 재구성

또한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WoW 프로젝트에서 교사, 학생,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멘토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재능계발을 지원한다. 멘토는 학생들의 재능 발현을 위한 지도자이며, 때로는 절친한 친구이자 롤 모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동질감 조성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는 동일한 이주배경을 가진 멘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사범대학 관련자로 대학교 고학년 혹은 졸업자로 이들에게는 감정이입 능력, 관용,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멘토 대상의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 이해, 영재아동의 특징과 지원방안 등의 교육학, 심리학 관련 주제로 주말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3) 독일 이주배경 영재 지원 프로젝트 Talent im Land

독일은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sup>18)</sup>이 필요하다. Talent im Land는 ‘국가의 재능’이라는 의미로 이주배경을 가진 영재학생들의 교육과 직업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2003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2005년부터는 바이에른 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Talent im Land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을 가진 영재학생들이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이주가정 영재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참가 지원대상은 대학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8학년, 9학년 이상의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지원자격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자, 학교 성적 우수자, 동기 및 배움에 대한 의지와 목적의식이 강한 자, 사회봉사 정신·사회참여·정치적 의식이 강한 자이며, 학생 선발 기준은 학교성적, 동기, 사회봉사, 사회참여의식(사회적 의무감) 등이며 문화, 대학, 경제 관련 대표자들이 매년 50여 명을 선발한다.

Talent im Land 프로젝트의 학생 지원 체계를 요약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독일 Talent im Land 프로젝트 학생 지원 체계

구분	내용
장학금	학교, 책 구입, 음악, 문화 체험 등을 위해 평균 매월 200유로가 지급된다. 이 외 필요에 따라 독일어나 외국어 과외수업, 학교 수학여행,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견학, 여름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 방법, 능력을 전달한다.
개별상담	교육과 삶의 계획 수립을 위해 "탈렌트 임 란트" 관계자들이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과거 장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교와 대학 진학 문제, 직업 예비 교육과 직업계획을 지원한다.

18)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은 다문화적 역량을 활용하여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이재분 외, 2011).

구분	내용
부모에게 정보제공	이주가정의 부모의 경우 독일 교육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부족이나 교사와 학교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 모임을 개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 네트워크	교사는 이주 학생들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교사의 참여의식 없이는 학생 장려는 어려운 일임으로 교사에게 이질성, 영재지원, 제 문화 학습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홍보활동	최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은 사회적 인정 또한 필요하다.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능력 있고 목표의식, 참여 의식이 강한 독일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행사, 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출처 : 이재분 외(2011) 재구성

### 라. 독일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독일의 문화예술교육(Kulturelle Bildung)은 독일 내에서 문화교육학에만 한정되지 않은 사회학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성경숙, 2012). 독일 문화진흥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문화와 문화교육은 한 사회를 유지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유산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독일 문화부 장관 Bernd Neumann의 이 한 문장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한 사회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시켜주는 전통과 풍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가치를 미래로 전달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문화예술진흥교육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독일문화미디어연방정부기관(BKM)에서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짧게는 일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은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학문으로 규정되며 음악, 회화, 문학, 연극, 무용 등 세부 교육 분야로 분류된다.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하나의 정치적인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인 테마로 성장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다양하다. 하지만 문화를 하나의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독일에서는 청·장년 및 실버 세대 또한 주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청·장년 및 실버

세대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 장려라고 한다면 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육 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들 간의 협력 하에 인격 양성과 학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 학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삼고 이를 보충 및 보완하는 개념으로 학교 외 단체와의 외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와 문화 영역 사이의 공동 협력 관계이며, 이미 2004년부터 예술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연방 중앙정부 미디어문화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강조한다. 즉, 문화 소외 집단 없이 전 국민이 문화예술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며 익히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취학 중 학생들이 가정형편이나 이민자 가정이라는 이유 등의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가 매년 ‘미디어문화부 문화예술교육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셋째, ‘문화전달’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운영하는 연방주 문화기금 이니셔티브는 전 연방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Jedem Kind ein Instrument)’과 2011, 2012년부터 시작한 ‘창조적 학교 만들기 위한 클투어 아젠트 이니셔티브’가 있다. 넷째,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잠재력을 키우고 특히 문화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받는 프로젝트들은 취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까지 대상 연령층과 지역 및 문화예술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예술교육 정책은 차별 없는 문화정책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수업 참여의 공평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체험 우선성’을 강조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연방주별 담당 문화부와 교육부는 경제적 수준과 국적 등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수업 참여의 공평성을 강조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 즉 수혜자들의 호기심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식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한다. 셋째, 체험 우선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체험’은 직접 만지고 경험한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전문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체험 활성화로 인해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아틀리에 또는 활동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참여자들을 위한 심화 과정을 마련해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 마. 종합

독일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체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영재교육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연방정부는 관련 법 제도, 영재교육 지원 모델 등과 같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독일 학생 아카데미, 평가대회 등을 통해 주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다양한 영재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원연수 등의 실제적인 정책의 실천은 주 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둘째, 독일은 주 정부가 영재교육 정책 실천에 필요한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 정부가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학 전문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소외계층 영재 지원을 위한 멘토나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관리를 위한 평가 또한 대학의 전문인력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외계층 영재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은 주 정부와 재단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된다. WoW 프로젝트는 험스호른 재단과 함부르크 주 정부 교사교육과 학교개발연구소가 협력하여 소외계층 밀집지역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영재아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한 이주배경을 가진 영재를 지원하는 Talent im Land 프로젝트는 로버트 보쉬 재단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가 협력하여 장학금, 개별상담, 교육프로그램, 교원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외계층 영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링을 통해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소외계층 영재 지원을 위한 로날드 베르거 재단

의 장학 프로그램 Fair Talent는 12개의 영재 학생 지원 모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의 핵심은 학교, 가정, 재단과 영재학생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멘토이며, 이들은 영재로 선발된 장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동기를 갖게 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함부르크 소외계층 밀집지역 영재학생을 지원하는 WoW 프로젝트에서도 멘토는 학생들의 재능 발현을 위한 지도자, 때로는 절친한 친구이자 롤 모델 등의 역할을 하며,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동질감 조성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는 동일한 이주배경을 가진 멘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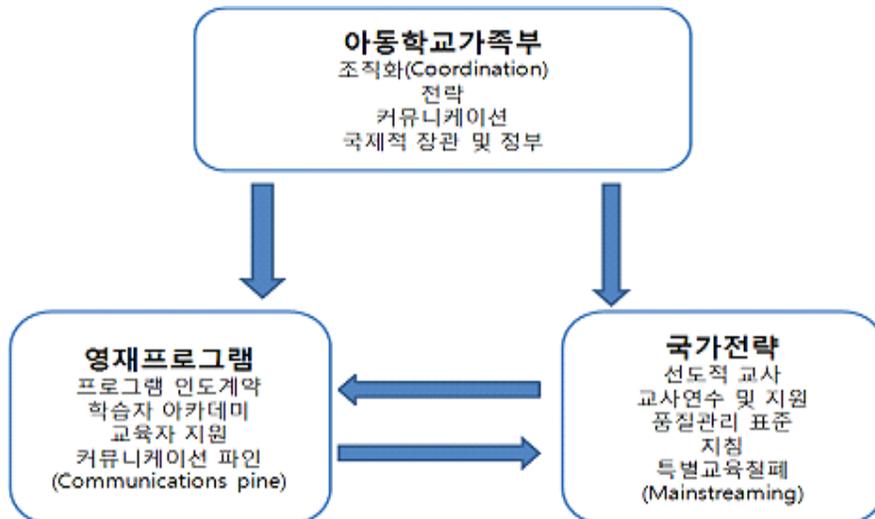
다섯째, 독일의 문화예술교육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강조한다. 즉, 문화 소외 집단 없이 전 국민이 문화예술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나 이민자 가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의 예술교육 정책 또한 차별 없는 문화정책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경제적 수준과 국적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수업 참여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독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와 문화영역 사이의 공동 협력 관계이며 지난 2004년부터 학교와 예술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예술교육 정책에서는 직접 만지고 경험한다는 ‘체험 우선성’을 강조하여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아틀리에 또는 활동 모습을 직접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심화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 2. 영국<sup>19)</sup>

### 가. 영국의 영재교육 기본방향 및 지원체제

영국의 영재교육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상위 5~10% 학생들을 특수교육 형태로 분리하여 교육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내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보충하여 그들의 가진 재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즉, 분리가 아닌 통합형 교육을 추구하며 이러한 통합형 교육 모델을 토대로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영재교육 지원체제는 [그림 III-3]과 같다.



출처 :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이재분(2011)에서 재인용

[그림 III-3] 영국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체계

영국의 영재교육은 국가차원의 영재교육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교가족부(DCS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주도하에 추

19) 본 절은 이재분 외(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5)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진되어 왔으며, 그 실행체계는 학습자와 교육자의 총체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영재 프로그램(YG&T, The Young Gifted and Talented Programme)과 교원 역량 강화와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ies)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재프로그램(YG&T) 운영을 민간 교원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체계를 전문화하고 정책 효과를 도모하였다. 또한 영국의 영재교육 정책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하는 ‘GT Voice’는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기구로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조직, 교육전문가, 학생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T Voice’는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영재 관련 커뮤니티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영재교육의 실제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모든 사회문화적 배경을 다른 영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영재교육 네트워크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커뮤니티들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 GT Voice 영재교육 헌장(Charter, 2011)

- 모든 영재교육 학습자는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지원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효과적인 영재교육 서비스는 우월한 교육성과를 보장해야하고, 특혜집단과 소외집단의 영재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 영재교육은 학습자의 사회적 이동과 성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 영재교육의 성공을 위해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 기회가 확장되어야 한다.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조정그룹은 새로운 교육정책과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학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

출처 : 이재분 외(2011)에서 재인용

#### 나. 영국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배경 및 정책

영국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배경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재교육이 태생적으로 가진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재교육을 둘러싼 계급화와 인종차

별주의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교육수월성 강화(excellence in education)’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적 포용과 통합(social inclusion)’을 동시에 추구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소외 계층 영재교육은 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망을 확충하고,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영재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소외계층 영재교육정책의 방향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소외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영재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상급식수혜자,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인 영재 학생들도 그들의 열정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지원을 기울이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외계층 출신의 영재들이 사회적 리더로 배출되는 것을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 영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은 재능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을 전인적인 리더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안과 학교 밖의 공정하고 최상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학생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인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 의적, 사회적 영역을 균형 있게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단순하게 영재의 인지적 능력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로 막혀 있는 정서 발달과 리더십을 경험하고,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비전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전인적인 영재성을 발굴하고 계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영국 교육부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정책의 성공요소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이재분 외, 2011, 재인용).

- 강력한 전략적 리더십(Strong strategic leadership): 각급 학교는 영재교육의 산재된 자원을 활용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 조건이다. 견고하고 전력적인 리더십은 영재교육 성공의 핵심 결정 요소로서, 특히 리더십을 가진 영재교육 선도교사들은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이는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학습동기를 높이고 상위계층 학생들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 효과적 교실 현장(Effective classroom practice): 교사가 만드는 교실 현장 활동과 수업 분위기는 영재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자체 평가(self-evaluated)를 실시한다. 교사의 지속적인 직업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은 수업 현장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이다. 교사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에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 목표를 높여갈 수 있다. 결국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수업 현장은 소외 계층 영재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최전선이다.
- 잠재력 발굴을 위한 맞춤형 지원(Personalised support to unlock potential): 학교는 학생들의 가난과 소외를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서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구조화해야 한다. 그들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학습의 롤 모델을 제시하여 역량의 지평을 넓히는 학습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 선명한 모니터링과 유기적인 관리(Clear monitoring and tracking systems): 소외 계층 영재학생을 단순히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잦은 중도탈락 현상을 예방하고 교육 비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모니터링과 성과 추적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학습 문화(‘can do’ attitude)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 파트너십과 협동학습(partnership and collaborative learning): 영재교육 정책의 효율적 실천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파트너십과 협동 학습이 수반된다. 교육부가 2009년 선정한 영재교육우수역량달성학교(high performing partnership schools, HPSS)들은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간 교육 자료 및 교사 인력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범학교 차원의 파트너십은 영재 학생들의 다층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 다. 영국 소외계층 영재지원 프로그램

### 1) 격차해소 프로그램(Narrowing the Gaps, 이하 NtG)

격차해소 프로그램(NtG)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표 III-5> 영국 격차해소 프로그램(NtG) 개요

구분	내용
NtG 목표	소외계층 출신 영재 및 우수 학습자의 성취도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
NtG 교육 대상 및 수혜 그룹	흑인 및 소수 민족,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무상급식 대상자(FSM), 가정이 해체된 빈곤계층, 소외와 위험 상황(risk of exclusion)에 노출된 난민 출신 아동, 비영어권 출신 이민 아동

출처 : 이재분 외(2011) 재구성

NtG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교육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숨겨진 영재성을 발굴하고 발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림 III-4]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격차 파악을 위해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 간의 격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요소들에 의해 다양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궁극적으로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 간의 격차가 해소되어 교육수월성(Excellence for All)이 제고되는 것을 도모한다. NtG의 결과물로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소수계층 학습자를 위한 교육자료집이 약 15종 발간되었고 영국 전역에 있는 각 학교의 영재교육 실천을 지원하였다.



출처 :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이재분 외(2011)에서 재인용

[그림 III-4] 영국 소외 영재교육 ‘격차해소프로그램’도식도

한편 영재교육 국가전략위원회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적인 교육기제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정 분석틀을 개발하였다<표 III-6>. 영국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영재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기 평가 리포트와 인터뷰, 사례 연구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표 III-6> 영국 소외계층 영재학생의 교육격차해소 교육과정 분석표 예시

준거	교육과정 분석	교사 역할	학업 진도	발전 계획
교육과정신뢰도 (credibility)	-	-	-	-
인종주의 (Racism)	-	-	-	-
복합 다양성 (Diversity within diversity )	-	-	-	-
다층적 정체성 (multiple identity)	-	-	-	-

준거	교육과정 분석	교사 역할	학업 진도	발전 계획
역동적 학습문화 (Dynamic culture)	-	-	-	-
다양한 관점 (Diverse perspective)	-	-	-	-

출처 : Department of Education(2009), 이재분 외(2011)에서 재인용

## 2) 소수인종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습가이드 제공

소수인종 학생들과 새로 입(전)학을 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학습가이드를 제공 프로그램인 ‘Ethnic Minority Achievement Resources(EMA resources)’와 ‘New Arrivals Excellence Programme (NAEP)’ 등은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새로 전학을 왔거나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습 가이드를 제공한다. 자료집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 전략을 DVD, 비디오 자료, 이러닝 모듈(eLearning module) 등 다층적인 학습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하며 이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3)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한 교수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닝 프로그램과 온라인 학습자료를 개발을 통해 영국 전역의 재능 있는 소외계층 영재들이 맞춤형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교육을 상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 하여 활용하였다.

## 4)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업강화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소외계층 영재들에게 중등입학자격시험(GCSC)부터 대학진학까지 교육기회 우선권을 주기위해 학업강화프로그램(Government’s flagship academies)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에 소외계층 출신 대학생들의 낮은 입학률과 높은 중도탈락

률에 주목한 영국 교육부는 고등교육체제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취를 나타내는 노동자 계층 출신의 대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영재교육 장학기금을 제공하였다.

### 5) 주인의식과 자긍심 고취(Encouraging pupil ownership) 프로그램

소외계층 영재들의 주요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교육적 기회 저하와 낮은 성취 동기이므로, 이들을 지원할 때에는 개별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학습자들이 영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 
- 학습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는 자신감 고취
  - 꿈과 목표 설정을 위한 멘토링과 맞춤형 지원
  -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녀를 독려하는 열린 세미나 제공
  - 영재교육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혁신적 교수학습 활동 실천
- 

출처 : 이재분 외(2011) 재구성

### 6) 포괄적인 멘토링(Inclusive Mentoring)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소외계층 학생들은 그들의 숨겨진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발현하기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데, 맞춤형 지원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멘토링이다. 소외계층 영재학생을 위한 멘토링은 학생들이 부딪히는 학습의 어려움과 고민을 밝혀내고, 그 문제를 진단하여 스스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소외계층 아동들은 주변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멘토를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효능감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멘토역할을 하는 교사들은 2주마다 1회씩 멘티학생과 만남을 갖으며 학생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린 문 정책'(open door policy)을 통해 교사와의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 7)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대학 탐방 프로그램

실제 영국 영재교육에 참가했던 소외계층 중등학교 영재학생들이 지역대학교 탐방 프로그램에 만족감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옥스퍼드 등 명문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고 대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팀별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은 그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대학진학에 대하여 도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8) 학부모 참여와 역할 강조 프로그램(Parent Involvement Programs)

학생의 잠재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가정의 환경적 제약과 부정적 분위기는 이들이 영재교육에의 중도탈락률을 높이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소외계층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속한 가정의 부모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거나 이혼, 실업,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영재로 분류되더라도 부모로서 개입과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소외계층 영재교육에서 가정에서의 학습독려와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조하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 
- 학부모를 위한 '학습 기술 세미나' (Learning skills sessions for parents) 개최
  - 학부모를 위한 간담회 및 정기보고회
  - 자녀의 연습과 복습을 독려하는 교육용 책자 발간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예회
- 

출처 : 이재분 외(2011) 재구성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녀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학예회와 같은 교내 행사 참여를 통해 그들의 자녀들이 왜 영재로 선발되었고 학교와 교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소외계층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활동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긍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9) 학교 간 상호교류와 협력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추진되는데, 학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은 자기 학교와 자기 수업 문제를 다시 성찰해보고 영재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 
- 학교 간 우수사례 공유
  - 영재교육 범 학습공동체 형성
  - 유사 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단 구성
  - 교원 교류 및 교육 자료 공유
  - 상호 컨설팅 제공
  - 팀별 주말 네트워크 활동
  - 학교간 토론 클럽(debating club)
- 

출처 : 이재분 외(2011) 재구성

### 10) 커피타임을 통한 교사-학생 간 컨설팅

영국에서 전교생의 무상급식 비율이 41.2%인 취약 계층 비율이 매우 높은 중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컨설팅 커피 타임’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학교는 영재교육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자연스러운 아침 커피 모임을 마련하였고, 이 시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서로 마음을 열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무형식 모임을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학업 목표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학생

들의 자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소외계층 영재들은 이러한 커피 모임을 통해 일반 학생들에게 리더로 인식되고 자기 확신과 성취동기를 높이게 된다.

## 라. 영국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및 사례

영국은 과거 노동당 정부시절 가장 활발하게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이라는 정책 용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방법론에 관한 정책 및 학문적 논의가 축적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CP(Creative Partnerships)는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년간 영국의 사회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당 정부시절 운영되었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사는 18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곡교육 프로그램인 ‘Youth Music’, 14세-25세의 소외된 젊은층 대상의 일대일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인 ‘Youth Mentoring Programme’, 문화체육교육부와 아동학교가족부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을 지원하는 ‘Museum Strategic Commissioning’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정책 프로그램	내용
Youth Dance Eng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아동학교가족부와 함께 로얄오페라하우스의 토니 홀(Tony Hall)에게 젊은 층의 무용역량을 개발하고 세계수준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용교육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함</li> <li>▪ 그 결과 학교 내에서의 무용교육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에서의 무용교육을 촉진시키는 무용교육전략인 ‘Youth Dance England’이라는 펀딩프로그램이 영국예술위원회를 통해 추진됨</li> </ul>
Youth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outh Music’ 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사는 18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작곡을 교육하는 프로그램</li> <li>▪ 1999년에 시작하여 국립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여 2006년까지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젊은 층이 기금을 수여받아 지방교육청의 98%가 프로그램이 수혜를 받음</li> <li>▪ 또한 3년간은 내무부(Home office)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해 작</li> </ul>

III. 국외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례

정책 프로그램	내용
	<p>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1년까지 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는 영국 내에 19개의 지역에서 850명의 훈련생을 배출시키고 이 가운데 적어도 200명이 다시 멘토로 활약하게 되는 결과를 끌어냄</p>
<p>Youth Mentoring Programm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미디어트러스트의 'Youth Mentoring Programme'을 통해 언론사, 전문 언론인과 함께 젊은 세대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에 지원함</li> <li>▪ 미디어트러스트는 14-25세의 소외된 젊은 층을 위하여 일대일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였음</li> <li>▪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젊은 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li> </ul>
<p>Museum Strategic Commission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갤러리·아카이브진흥위원회는 문화미디어체육부, 아동학교가족부의 기금을 받아 박물관·아카이브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고 교육활동에 대한 공급을 확장하며,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에 보다 폭넓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몇몇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li> <li>▪ 2003년 이후,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아동학교가족부는 협력작업을 통해 'Museum Strategic Commissio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잉글랜드 전역에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에 지원함</li> <li>▪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젊은 층은 물론 성인까지 문화자원과 이를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식, 비공식적인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함</li> <li>▪ 기금은 박물관과 교육분야의 협력과 역량 강화, 교사와 박물관 스태프의 전문성 개발 등에 사용됨</li> </ul>
<p>Engaging Pla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건축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 영국문화재청(English Heritage) 과 협력하여 &lt;Engaging Places&gt; 프로젝트를 수행함</li> <li>▪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젊은 층으로 하여금 건축물과 장소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과 환경에 대해 보다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됨</li> <li>▪ 이를 위하여 건축환경위원회(CBAE)와 영국문화재청은 공동의 접근이 가능한 합동 유닛을 세우고 건축환경의 교육적 잠재성의 탐구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교사들에게 제공함</li> </ul>

출처 : 권순석 외(2015)에서 재인용

하지만 2010년 보수-자민 연립정부 출범 직후 비용절감 대책으로 문화예술분야 정책의 대폭 축소 및 예산삭감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2012년 영국 문화부 장관 Ed Vaizey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발표하였고, 2013년 7월 문

화미디어체육부는 영국 문화예술교육 계획(2013-2015)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영국 문화예술교육 계획에는 영국 내 모든 학생에게 문화 향유 기회 부여, 인재 양성, 소외계층 적극 지원, 예술 교과목 커리큘럼의 질적 향상, 훌륭한 교사를 통한 훌륭한 교육 제공, 영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본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영국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기회

목표	내용
모든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함	모든 어린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최고의 문화예술활동에 접근할 기회를 가져야 함
재능을 개발하고 불이익을 배제함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린이는 그가 가진 배경과 관계 없이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음악, 미술과 디자인, 무용,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예술 과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과 자격요건을 제시함	예술과목에 있어서 고품질의 교습과 자격요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커리큘럼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재정비 함
최고 수준의 교육	모든 어린이는 그들이 지닌 문화예술 지식과 이해, 기술을 개선/개발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함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	모든 어린이가 국가의 현재와 문화를 형성한 역사와 맥락, 상징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의 현재 모습을 만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프로그램 목표를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의 목표를 이행하고 프레임워크를 발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지함

출처 : 권순석 외(2015)에서 재인용

## 마.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체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영재교육은 특수교육 형태로 분리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내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통합형 교육을 추구하며, 모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영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영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즉, ‘교육을 통한 통합’과 ‘수월성을 위한 개별화’를 이루기 위한 영국식 영재교육 모형이 수립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의 영재교육은 국가 인재 양성의 수단과 동시에 인종, 문화, 계층, 언어 등의 차별 없이 이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학생들의 사장된 재능을 발굴하고 이들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혈연 기반의 전통적인 사회 지도층을 재생산하는 영재교육이 아니라 소외 집단의 우수 학습자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최근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2013년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교육계획(‘13-’15)을 기반으로 영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며,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예술 교과목 커리큘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훌륭한 교사를 통한 훌륭한 교육을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어린이 및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미국

#### 가. 미국 영재교육 기본방향 및 지원체제

미국 영재교육의 시작은 약 140여 년 전인 1875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연구실에서 시작한 인간심리에 관한 연구와 1876년 존스 홉킨스대학교 심리학연구실에서 시작한 영재아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두 기관의 영향을 받은 Terman의 영재의 발생학적 연구(Genetic Studies of Genius)는 영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구자억 외, 2002). 1969년 미국 의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영재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영재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영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70년에 접어들면서 영재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확산되고 영재교육을 위한 지역공동 영재교육센터의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1972년 정책건의서인 말랜드(Marland) 보고서가 미국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영재교육 담당자 전문성 계발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고, 뿐만 아니라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수전략의 도입, 영재학교, 영재학급, 풀 아웃(pull-out) 영재학급, 자료실에서의 개인 연구(resource rooms), 정규학급 내에서의 교육과정 수정, 조기진급, 조기졸업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박성익 외, 2003).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1988년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 Act라는 영재교육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각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영재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재분 외, 2011). 미국 영재교육정책의 기본 취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Javits 영재교육법 제정의 기본 배경은 다음과 같다.

- 
- ① 영재는 미래의 국가발전, 안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 ② 영재들의 특수재능을 초·중등학교시기에 계발시키지 못하면 국가발전에 기여할 영재들의 특수한 잠재적 능력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의 영재들은 영재로서 발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들은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④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서 얻은 교육적 경험과 지혜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도전감과 적극적인 학습습관 형성 등에 기여할 것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 ⑤ 연방정부는 영재들의 독특한 지적 탐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주 정부 및 지역학교구의 교육관계자는 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효과적·효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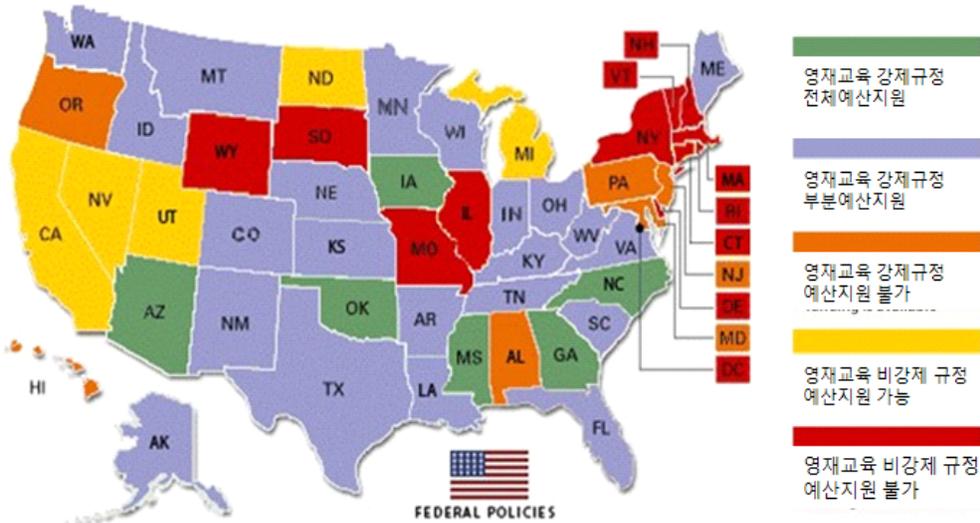
출처 : 조석희, 오영주(1997)

---

그러나 2011년에 와서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오던 Javits 영재교육법에 의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 새로운 영재교육 법안인 TALENT (To Aid Gifted and High-Ability Learners by Empowering the Nation's Teacher Act)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기존의 Javits 영재교육법은 폐지되었다. 폐지된 Javits 영재교육법과 비교하여 TALENT 영재교육 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주 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② 교원의 영재교육 연수 기회 확대, ③ 소외영재에 대한 지원 강화, ④ 효과적인 영재교육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확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영재교육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행지침을 마련하거나 예산 편성 심의 등의 역할만 수행한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각 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주 별로 영재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각 주마다 영재의 선발 기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매우 다양하다. 예산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각 주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 각 주

별 영재교육정책과 예산지원현황을 나타낸 [그림 III-5]와 같이, 영재교육을 강제로 규정하면서 전체 예산을 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아예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재교육이 강제 규정이 아니면서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 규정도 없고 예산 지원도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이재분 외, 2011).



출처 : 이재분 외(2011)

[그림 III-5] 미국의 각 주별 영재교육정책과 예산지원현황

### 나. 미국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배경 및 정책

미국 영재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72년 Marland 정책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Marland 정책보고서에는 영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제 미국의 많은 영재와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과 같은 소수의 집단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재분 외, 2011). 이후 1988년에 제정된 Javits 영재교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후 관련 연구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

원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이재분 외, 2011). 뿐만 아니라 2011년에 새롭게 개정된 TALENT 영재교육법에서도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이를 위한 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무적인 강제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이재분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영재교육은 미국의 문화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주요 영재교육 수혜자는 미국 주류 사회의 아동 청소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가 차원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다. 미국 소외계층 영재지원 사례

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은 연방정부 차원과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례로는 Project Synergy, Project HOPE, Project GATE 등이 있고, 주 정부 차원에서 기관, 대학부설 영재교육연구소, 개인 연구자들이 개발하여 지원하는 HOTS Program, Discover Program, Project Star, Project START 등이 있다. 각 사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0)</sup>.

### 1) Project Synergy

Project Synergy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7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영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방안을 연구(Borland & Wright, 1994, 2000)한 사례로써, 뉴욕 할렘에 거주하는 유치원생들의 잠재적 영재성을 판별하고 이들에게 브릿지 프로그램(transitional service)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영재성을 충분히 계발시켜 궁극적으로 기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소외영재 판별을 위해 총 3단계<sup>21)</sup>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아동들의 판별 데이

20) 해당 내용은 이재분 외(2011)의 연구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음

21) Project Synergy의 영재성 판별 단계는 1단계(표준화 검사), 2단계(역동적 평가, 수행평가 등 비전통적인 방법), 3단계(개인별 사례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나치게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터를 검토하여 ① 현재 영재성이 나타나지 않는 아동, ② 영재성 여부가 확실치 않아 향후 관찰과 재평가가 필요한 아동, ③ 영재성을 나타나 관련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동, 이렇게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Borland & Wright, 1994). 특히, 영재성이 나타나 관련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에게는 정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에 브릿지 프로그램(transitional service)을 제공한다. 진단-처치 접근 방식의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초과목(읽기, 쓰기, 수학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문화적 심화활동, 사고력 프로그램, 상위인지 기능 활용법 등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Project Synergy는 이렇게 저소득층 소외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판별하여 선발된 아동들이 브릿지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재배치 된 아동은 5%정도이며, 재배치된 후에는 정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취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 2) Project HOPE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된 Project HOPE은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자녀들 중에서 수학영재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도전적인 수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Cho & Jenny, 2011)한 사례이다.

Project HOPE은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교육구 공립 초등학교 중에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 선발 기준은 영어를 별도로 배워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년도 수학, 영어 성적과 교사의 추천 점수가 상위 50%이 내의 속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선발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방식으로 주 3~4회(37분/1회당) 2학기에 걸쳐 수학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제공된 수학영재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영재교육연구소 중 코네티컷 대학의 Gavin 박사 팀이 개발한 Mentoring Mathematical Mind: M3이다. 또한 투입된 교사에게는 영어가 미숙한 영재의 특성, 수학 영재의 특성 및 교육 방법, 수학 탐구, 수학 문제해결, 수학개념에 관한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 방법 등에 관

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3일간 받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1년 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수학 개념, 영어 독해 및 작문능력,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두에서 의미 있게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Cho & Jenny, 2011).

### 3) Project GATE: Opening the door for all

Project GATE는 볼주립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연구소(Center for Gifted Studies and Talent Development) Cheryl Adams 박사 팀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의 전체 학생의 50%가 넘는 일반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전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영어가 미숙한 학생,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①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지식과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한다.
  - ②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Indianapolis Public Schools: IPS)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 ③ IPS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터쉽을 제공할 수 있는 지도교사진을 개발한다.
  - ④ 학부모 대상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 ⑤ 취약한 영재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출처 : 이재분 외(2011)

---

이 연구는 3년차 연구로, 1차 년도에는 5개교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2차 년도에는 5개교 중학교를 추가하고, 3차 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5개교씩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수업전략으로는 Cheryl Adams 박사의 수준별 수업방법이다.

#### 4) HOTS(Higher Order Thinking Skills) 프로그램

HOTS프로그램의 목적은 불우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영재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고와 과제집착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컴퓨터, 드라마,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상세한 교육과정을 모두 통합한 사고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49개 주 2,00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HOTS에 기반을 둔 학습 전략 프로그램인 Supermath 프로그램은 세 가지 원칙 즉, ① 흥미로운 학습 환경 조성 ② 소크라테스식 대화법과 시각적이고 상호적인 경험의 결합, ③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경험을 일반화하고 학습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지구조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 5) Discover Program

Discover 프로그램은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하여 Maker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중지능이론에 입각하여 일반 학습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프로파일이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 개인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iscover 프로그램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에 제시된 다섯 가지 유형의 과제를 활용한다.

- 
- 유형1. 기존 지식에 의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폐쇄적이고 간단한 과제
  - 유형2. 유형1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기존 지식을 응용하여 학생이 푸는 방법과 답을 모두 도출해야 하는 과제
  - 유형3. 보다 개방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다양한 범위의 해결방법과 정답이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해결방안을 고민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과제
  - 유형4. 문제와 목적은 분명하나 교사에게도 해결방안과 정답이 분명하지 않은 과제로서, 학생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깊이 있게 탐구를 해야만 해결방안이
-

도출될 수 있는 과제

유형5. 문제 자체, 해결방안, 정답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개방적이고 복잡한 과제로, 문제 자체를 학생이 찾아내고 정의하여 해결방법과 답까지 도출해 내는 과제로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법과 답까지 도출하는 그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므로, 최종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출처 : 이재분 외(2011) 재구성

Discover 프로그램에서의 판별도구로 영재를 선발한 결과 다양한 사회계층과 소수민족의 학생들이 영재로 판별되는 것을 입증하였다(Sarouphim, 1999; Maker, 2005).

## 6) Project Star

Project Star는 미국 South California주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숨어있는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VanTassel-Baska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루브릭(rubric)을 이용한 수행 평가방법이다. 이들의 개발한 수행평가는 South California주의 정식 영재판별도구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수민족 학생이 영재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Project Star는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 유형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 지식 보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결정적 지능보다 유동적 지능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개방적이고 조작적(manipulative)인 유형의 학생들의 원래 수준보다 약간 높은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발견하여 수정하는 등 사고과정을 중시하였다.

## 7) Project START

Project START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샬롯 메클렌부르크(Charlotte Mecklenburg) 공립학교<sup>22)</sup>와 협력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소외계층 영재 발굴을 위해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22) Charlotte Mecklenburg 공립학교는 40%가 소수민족으로, 영재 프로그램을 받는 소수민족 학생은 10% 미만이며, 흑인계 미국학생이 68%를 차지하는 학교이다.

서 교사는 다중지능 영역 중에서 언어, 논리-수학, 공간 지능 이 세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행동 특성에 관한 체크리스트와 관련 수행과제를 통하여 평가하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Project START는 다중지능에 근거한 학습과정과 멘토십 프로그램, 가족 아웃리치(family outreach)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정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국적 교육과정과 조작적 학습(manipulative learning)을 통한 개념습득, 추상적 사고, 언어 능력,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활동들을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라. 미국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및 사례

미국의 문화정책은 헌법정신의 가장 상위개념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의거하여 정부가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부처 대신 미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sup>23)</sup>이 문화와 예술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국가 정책 저변에 깔려있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의해 구현되어 왔으며, 문화예술 향유층과 비향유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문화예술 전 분야에 관한 정책의 계획과 실행의 기저에 깔려있다. 즉,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 민주주의의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므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문화예술의 다양성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정책 결정의 핵심에 두고 최근 몇 십 년 동안 크게 주목받아온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의 조화를 통해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송보림, 2012). 최근 미국의 문화예술교육이 강조

23) 1965년 설립된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은 예술 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모든 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창의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연방기관으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받으나, 조직구성 및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권순석 외, 2015).

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산업화 교육형식에 기반을 두어 기술이나 우수성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예술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대상적 확장과 함께 사회복지적 개념을 더하여 그 범주를 확장하고 참여자의 소극적 접근(access)이 아닌 적극적 참여(participation)을 독려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흔히 전통예술로 분류되는 고급예술만이 아니라 아마추어예술, 지방예술, 실험예술, 대중예술까지 모두 예술에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는 예술의 질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치적, 성적, 민족적,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ality)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예술작업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아마추어와 전문가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술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평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의 철학의 근간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중앙행정부서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를 추구한다.

둘째,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이념과 탈중심주의를 주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강조한다. 이 정책이 꾸준히 중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 미국인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아울러 소외계층을 포용함과 동시에 미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와서 이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또한 현장의 많은 교육자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Efland, Freeman, & Stuhr, 1996). 이후 재조명된 문화다양성 교육이 학교 현장 뿐 아니라 학교와 각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 마. 종합

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체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영재교육은 각 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주 별로 영재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각 주마다 영재의 선발 기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매우 다양하다. 예산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각 주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둘째, 미국은 영재교육에서 소외계층 영재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해 왔다. 1972년 Marland 정책보고서에서 영재교육이 소수 민족이나 장애인과 같은 소수 집단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 1988년 제정된 Javits 영재교육법에서 소외계층 영재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후 관련 연구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시화되었다. 2011년에 새롭게 개정된 TALENT 영재교육법에서도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이를 위한 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무적인 강제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은 연방 정부 차원과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소외계층 영재지원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Project Synergy, Project HOPE, Project GATE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영재교육 관련 기관 및 대학부설연구소, 개인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HOTS program, Discover Program, Project Star, Project START 등의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다.

넷째,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넘어 소외계층을 포용함과 동시에 미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것을 강조하였다.

## IV.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가 차원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을 지닌 학생에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했던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예술영재 뿐만 아니라 수·과학 분야에서의 소외영재 지원 사례도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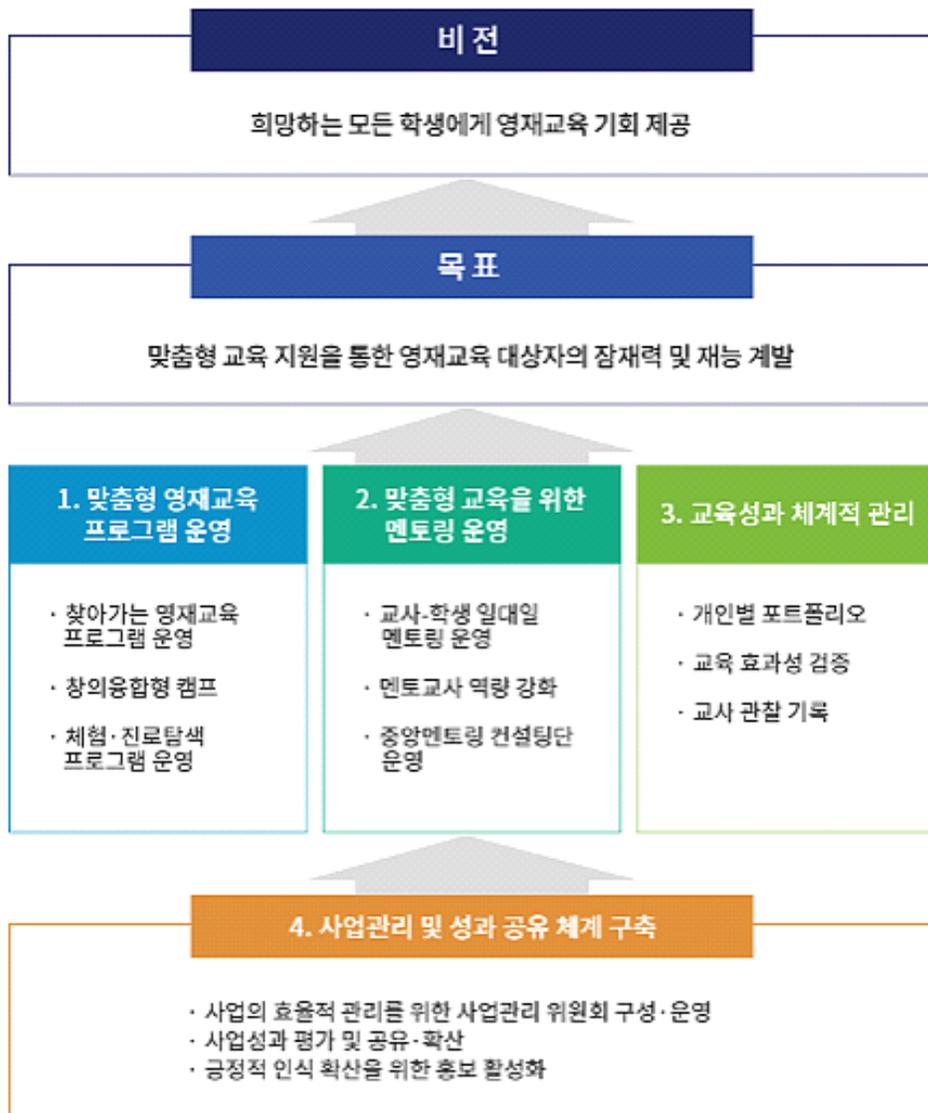
### 1.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 가운데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재성 발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대상이고, 선발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최소 3년, 최대 9년 간 지원을 받는다. 2019년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421명<sup>24)</sup>이며 선발 분야는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발명, 인문사회 등이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속하는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적 기제로 활용하여 창

24)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참여하는 학생 353명(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 포함)과 2019년에 새로 선발된 학생이 68명이다(교육부, 2018)

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8)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기본 방향은 [그림 IV-1]과 같다.



출처 :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림 IV-1] 영재키움 프로젝트 추진 기본방향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운영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 2항<sup>25)</sup> 및 시도별 자체 기준 등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영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총괄을 담당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운영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관리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8)

[그림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도

<표 IV-1>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교육부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li> </ul>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 멘토링 지원, 성장 추적관리 등</li> <li>▪ 멘토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li> <li>▪ 중앙 멘토링 컨설팅단 조직 및 운영</li> <li>▪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li> <li>▪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 사업비 집행 관리</li> <li>▪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li> </ul>

25) 교육급여 수급자,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내용
시도교육청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발(지원중단 및 재선정 포함)</li> <li>▪ 멘토교사 선발</li> <li>▪ 교사연구회 조직 및 운영</li> </ul>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①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필수), ② 창의융합캠프(필수) ③ 체험/진로 탐색 프로그램(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둘째, 소외계층 영재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멘토교사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1명당 1명의 멘토교사를 매칭하여 1:1 교사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영재키움 멘토교사는 참가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의지가 있는 교사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며 멘토교사는 연간 16차시에 해당되는 역량기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학습·진로·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활동내용 관찰 기록·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간 56차시(필수+선택+기타)로 구성된 역량기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안)을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역량기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예시

구분			시수	운영방법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			4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생, 멘토교사 및 관련기관 관계자</li> <li>▶ 일정: 2018년 5월 12일(토) 예정</li> <li>▶ 내용: 명사 특강, 캠퍼스 투어 등</li> <li>▶ 장소: 대전 KAIST 본원 대강당(E15)</li> </ul>
역량기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필수	찾아가는 영재교육	16H	<p>1. 학생-멘토 자기설계 영재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생, 멘토교사</li> <li>▶ 시간: 12시간</li> <li>▶ 횟수: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내용: 학생-멘토교사 자기설계 영재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진로 및 학업 성향 검사 결과 상담</li> <li>          학습 멘토링, 정서 멘토링</li> <li>          융합과학 프로젝트 등</li> <li>♣ 희망시 융합과학 프로그램은 KAIST에서 제공</li> </ul> </li> <li>▶ 운영: 학생-교사 1:1 운영 또는 영재교사연구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 가능</li> </ul>

IV.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구분		시수	운영방법
선택	창의융합캠프	24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원하는 장소 및 시도교육청에서 장소 제공</li> </ul> <hr/> 2.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생, 멘토교사, 전문가</li> <li>▶ 시간: 4시간</li> <li>▶ 횟수: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내용: 관련 분야 전문가와 멘토교사가 함께 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li> <li>▶ 운영: KAIST에서 프로그램 제공</li> <li>▶ 장소: 시도교육청에서 장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생</li> <li>▶ 일정: 여름방학 중 2박 3일</li> <li>▶ 횟수: 2회(1차: 초등학생, 2차: 중·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18. 7.20(금) ~ 7.22(일)</li> <li>- 2차: '18.7.22(일) ~ 7.24(화)</li> </ul> </li> <li>▶ 내용: 초·중학생(여름방학 집중교육 프로그램) 고등학생(코칭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li> <li>▶ 장소: 대전 KAIST 본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생, 멘토교사</li> <li>▶ 시간: 8시간</li> <li>▶ 횟수: 2회(학기당 1회)</li> <li>▶ 내용: 진로탐색 및 멘토링 현장체험 학습 문화체험</li> <li>▶ 운영: KAIST에서 프로그램 제공 멘토교사-학생 자율 운영</li> <li>▶ 장소: 내용에 따라 다양</li> </ul>		
성과발표회		4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교사 및 관련기관 관계자</li> <li>▶ 일정: '19. 1.26(토) 예정</li> <li>▶ 내용: 영재키움 우수사례 발표 운영 성과 공유 영재교사연구회 성과물 발표 우수자 시상 등</li> <li>장소: KAIST 문지캠퍼스 예정</li> </ul>

출처 : 2018 영재키움 교사 가이드 북

또한 학교급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창의탐구, 중학생은 창의융합, 고등학생은 자율연구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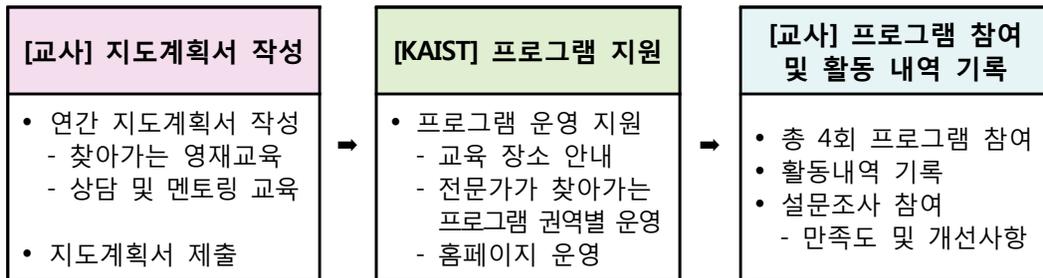


출처 : 영재키움 프로젝트 소개자료(KASI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2018)

[그림 IV-3]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교급별 교육과정 체계

역량기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멘토교사는 필수과정인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16시간과 선택과정인 ‘체험/진로탐색 프로그램’8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표 IV-3>.

<표 IV-3>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교사 활동 절차



출처 : 영재키움 교사 가이드 북(2018)

필수과정이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멘토교사는 학생의 관심 분야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함께 자기설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총12차시를 3회에 걸쳐 운영하며 교육일정은 멘토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정한다. 운영방법은 멘토교사 개별운영하거나 또는 영재교사연구회를 통한 공동 운영도 가능하며, 진로 및 학업성향 검사 결과 상담,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학습멘토링, 정서멘토링, KAIST에서 제공하는 융합과학 프로젝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영재교육기관,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기회(총4차시, 1회)도 제공하며, 고등학생들에게

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코칭 프로그램과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p><b>(코칭 프로그램)</b>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목표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1:1 코칭, 온라인 원격코칭을 통해 달성하도록 코칭 제공</li> </ul> <p><b>(팀프로젝트)</b> 협업능력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연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인과의 대화 및 발표 능력 함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있는 주제에 따라 조편성 후 자기주도연구(학습) 수행 및 발표 자리 마련</li> </ul>
--

---

선택과정인 ‘체험/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체험 및 진로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KAIST에서 제공하고 멘토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표 IV-4>.

<표 IV-4> 영재키움 프로젝트 체험/진로탐색 프로그램 예시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장소
진로탐색 및 멘토링	정부출연 연구소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출연연구소 견학</li> <li>▪ 최신 연구 동향 파악</li> <li>▪ 전문가와 진로멘토링</li> </ul>	대덕특구 연구단지
	대학생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홍보 도우미와 함께 캠퍼스 투어</li> <li>▪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 및 진로멘토링</li> </ul>	방문대학
	또래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고/영재고/국제고/외고 학생들과의 멘토링</li> </ul>	해당학교
현장체험 학습	미래 직업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탐방</li> <li>※ LG, 한화, 구글, SK, 넷마블 MS등</li> <li>▪ 미래 직업 체험</li> </ul>	방문기업
	지역특화 산업현장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화 산업현장 체험</li> <li>▪ 미래 직업 체험</li> </ul>	해당지역
문화체험	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뮤지컬 및 스포츠 관람</li> </ul>	체험장소
	발명 및 특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ST IP영재기업인 오픈 강좌 참여</li> <li>▪ 자율적 참여, 멘토교사 지도</li> </ul>	IP영재기업인 홈페이지

출처 : 2018 영재키움 교사 가이드 북

방학 중 2박 3일에 걸쳐 운영되는 창의융합캠프는 참여 학생의 잠재된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며 함께 참여한 참가자들 간의 협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캠프는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1차(초등), 2차(중등)으로 총2회 실시하며 참가학생 8~10명당 KAIST 대학생 1명을 멘토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캠프 세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세계 및 초청 특강,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및 토크콘서트, KAIST 대학생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담당 멘토교사와 함께하는 STEAM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7:00 ~ 09:00	대전 KAIST학생이동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 11:30		인문학과의 만남	도전골든벨
11:30 ~ 12:30	등록 및 멘토 배정		전문조사 및 폐회
12:30 ~ 13:3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30 ~ 14:00	개회식 및 안전교육	인문학 토크 콘서트	귀가
14:00 ~ 15:30	Magic Science 특강		
15:30 ~ 17:00	명사특강	융합과학프로젝트(초,중등) 자기소개서 작성법(고등)	
17:00 ~ 17:30	캠퍼스 투어	미식가 프로그램	
17:3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KAIST 대학생 진로멘토링	전문가 진로멘토링	
21:00 ~ 22:00	숙소 이동 및 검호	숙소 이동 및 검호	

출처 :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림 IV-4] 영재키움 프로젝트 2019 창의융합캠프 프로그램 일정(안)

## 2.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는 예술분야의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회통합범주 청소년을 선발하여 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우수한 예술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원의 집중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의 시초는 지난 2013년까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했던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발굴캠프’인데, 단 시간 이루어지는 캠프 프로그램 만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는 사회통합범주의 전국 초등학교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예술에 잠재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년중 9개월(4월~12월) 동안 주1회 분야별 개인별 맞춤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분야	교육과정	특징
전통예술	전공실기	전공강사와 1:1 수업
	마스터클래스	국내 최고 전문가와 1:1 수업
	장단실기	타악 수업을 통한 기본기 향상
	이론 및 감상	전통예술 전반의 이해를 위한 수업
	연주평가	무대에서 공연 및 연주를 통한 평가
음악	전공실기	전공강사와 1:1수업
	마스터클래스	국내 최고 전문가와 1:1 수업
	이론 및 감상	음악 전반의 이해를 위한 수업
	연주, 공연평가	무대에서 공연 및 연주를 통한 평가
무용	기본훈련	수준에 맞는 기초다지기
	개별 레파토리	기초수업과 연관된 개인별 레파토리
	마스터클래스	국내 최고 전문가와 심화실기
	공연평가	무대에서 공연을 통한 평가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에서는 이론·감상 및 무용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개인수업으로 구성되며, 특히 마스터 클래스 수업의 경우 한국 예술종합학교의 교수를 포함한 국내 저명한 예술가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중 각종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이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향상된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의 지원 자격은 크게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된다.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보훈자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며,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 중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다자녀가정,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장애인(1~3급)의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하다.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 기준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2019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지원자격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기회 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li> <li>▪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li> <li>▪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li> <li>▪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li> <li>▪ 【학교장 추천 요건】 ①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②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ul>
사회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자격]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li> </ul>

구분	세부기준
	<p>가진 친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p> <p>※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li> <l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li> <li>▪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li> <li>▪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li> <li>▪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li> <li>▪ 장애인(1급~3급)의 자녀</li> <li>▪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li> <li>▪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자녀</li> <li>▪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미화원의 자녀</li> <li>-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li> <li>-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li> <li>-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장 이하)</li> </ul> </li> </ul>

출처 : 2019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모집요강

선발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요건에 적절한지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심사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각 분야별 실기시험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리하면 <표 IV-7>과 같으며, 상대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표 IV-7> 2019년도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분야별 실기시험 안내

음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접수 시 연주할 작품명, 작곡가, 작품번호, 악장을 해당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li> <li>▪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전공 실기는 암보하여 연주해야 함 (타악기의 경우, 마림바는 암보 연주해야 하며 팀파니/스네어드럼은 악보 보는 것 가능)</li> <li>▪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모든 반복은 생략함</li> </ul>

- 카덴차(Cadenza)가 포함된 곡에서는 반드시 카덴차를 연주해야 하며, 그 어떤 카덴차를 선택해도 무방함. 단, 카덴차의 생략이나 특정 카덴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함
- 반주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자가 동반하여야 함
- 전주, 간주는 최소한으로 생략하여 연주함
- 실기시험 준비복장 : 교복착용 불가하며 상의 흰색 또는 검정색, 하의 검정색 착용 (여학생의 경우 원피스 착용 가능하며, 청바지 착용 불가)
- 시험장에는 불필요한 물품(휴대폰, 스마트워치 류 등)은 일절 반입 및 휴대할 수 없음

**무용 분야**

- 준비복장(머리는 단정하게 하여야 함)

성별	출생연도	상의	하의	신발
여	2008.1.1. -2009.12.31	흰색레오타드 (민소매)	타이즈 착용안함	흰색 발목양말, 흰색발레슈즈 (없을 경우 분홍색 발레슈즈 대체가능)
	분홍색 발레 타이즈		분홍색 발레슈즈, 포인트 슈즈	
	2003.1.1. -2005.12.31	검정색레오타드 (민소매)	분홍색 발레 타이즈	분홍색 발레슈즈, 포인트 슈즈
남	2006.1.1. -2009.12.31	흰색레오타드 (민소매)	검정색 골반타이즈 (전체 허벅지가 보이게)	흰색 발목양말, 흰색 발레슈즈
	2003.1.1. -2005.12.31	흰색레오타드 (반팔)	흰색 발레 타이즈	흰색양말(선택사항), 흰색 발레슈즈

- 2008.1.1.~2009.12.31.출생연도 지원자의 경우, 유연성 발달가능성 정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시험 중 신체 일부분(고관절, 허리, 다리 등)에 대해 세밀한 관찰(접촉 등 포함)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시험내용 : 시험 당일 현장 시범에 의한 실기테스트 예정
- 시험장에는 불필요한 물품(휴대폰, 스마트워치 류 등)은 일절 반입 및 휴대할 수 없음

**전통예술 분야**

- 준비복장

전공	복장	비고
기악 성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의 : 흰색 또는 검정색</li> <li>▪ 하의 : 검정색(교복, 청바지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 불가</li> <li>▪ 기악(타악) 지원자는 반주음악이 있는 경우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기관으로 이메일 제출</li> </ul>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습용 한복 (남자) 색상(상,하 흰색, 고름 흰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주음악이 있는 경우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후 기관 이메일로 제출</li> </ul>

IV.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여자) 색상(상,하 흰색, 고름 흰색), 허리는 끈으로 맬 것 ▪ 머리모양 (남자) 이마가 보이게 단정히 빗어 고정 시킴 (여자) 앞가르마를 하고 뒷머리는 밑으로 망으로 고정할 것	▪ 제출한 음원은 당일 고사 후 폐기처분 ▪ 제출 시 지원자의 이름, 작품명, 작품소요시간 정확히 기재 ▪ 머리 및 한복에 장식 금함(금박, 은박, 패치, 껌자 등) ▪ 패치형 속치마 금지 ▪ 겹치마와 부착된 패치 사용 금지 ▪ 무대분장 금함(색조, 특수화장 등)
연희	▪ 한복 또는 사물복(교복, 청바지 불가)	▪ 반주자 필요 시 지원자가 동반

- 연희전공의 경우 반주자 필요시 수험생 본인이 동반하여야 함  
 ※ 기악, 성악은 반주자 동반 금지
- 시험장에서 불필요한 물품(휴대폰 등)은 일절 반입 및 휴대할 수 없음

출처 : 2019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모집요강

이렇게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를 통해 성장한 학생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가적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차별 없이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 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가.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배경

우리나라는 2003년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인 ‘창의적인 문화시민’에 부합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수립되었으며, 미래 사회의 국민적 문화 역량의 증대가 곧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보편적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예술교육(Arts and culture education)이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하고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2조)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된다. 2004년 11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최초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2005년 8월에는 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행은 물론, 연구,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2005년 12월에는 문화부와 교육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책에 힘입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3~4년에 한번씩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확대·발전해가고 있다<표 IV-8>.

<표 IV-8>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과제 현황

구분	내용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 (2004-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기초연구 및 국민인식 제고</li> <li>• 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li> <li>•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 초·중등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li> <li>•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li> <li>• 문화예술교육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구분	내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증장기 전략 (2007-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li> <li>•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li> <li>•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li> <li>•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li> </ul>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2010-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li> <li>•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li> <li>• 예술 강사 전문역량 강화</li> </ul>
문화예술교육 증장기 발전계획 (2014-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li> <li>-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li> <li>-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추진</li> </ul> </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li> <li>-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li> </ul> </li> <li>•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산</li> <li>-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li> </ul> </li> </ul>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li>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li> <li>-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li> </ul> </li> <li>•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li> <li>-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li> <li>-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li> </ul> </li> <li>•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li> <li>-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li> <li>-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li> <li>- 가치확사 및 홍보강화</li> </ul> </li> </ul>

이상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중 소외계층 대상의 몇 가지 사업을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나. (사례1)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sup>26)</sup>

예술꽃 씨앗학교는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 개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교생의 문화감수성 및 문화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등 문화예술교육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면 최대 4년<sup>27)</sup> 동안 전교생 대상 연중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강사비, 교육재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예산은 학교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다.

-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활용도를 증대하고 우수모델 창출·확산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의 역할 확산
-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연수 운영을 통한 사업 이해도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학교별 모니터링, 사업계획 컨설팅 제공, 성과평가 진행을 통한 연차별 우수 사례 발굴 및 차년도 사업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26) 본 절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본연구에 맞게 재구성함

27) 지원 기간은 3년 확정지원, 교육성과에 따른 1년 추가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4년간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매년 진행되는 컨설팅 평가 및 연속지원 점검 결과에 따라 확정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체계 및 역할은 <표 VI-9>와 같다.

<표 IV-9>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총괄 및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계자 워크숍 개최</li> <li>- 학교 간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도모</li> </ul> </li> <li>▪ 사업 컨설팅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li> </ul> </li> <li>▪ 사업 홍보 및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활동 결과 축적·활용 및 대외홍보 등</li> </ul> </li> </ul>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 지역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자원,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등 연계</li> </ul> </li> <li>▪ 기타 사업 홍보 활동 및 연간 교육활동 기록</li> <li>▪ 사업관련 업무 협조 및 정산·결과보고 등</li> </ul>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 2) 운영현황 및 특성

예술꽃 씨앗학교는 2008년 10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전국 118개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전국에서 44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표 IV-10>, 2019년 현재 지역별·분야별·학교급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 IV-5].

<표 IV-10> 예술꽃 씨앗학교 연도별 사업 참여 학교 현황

구분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선정학교 수	10	16	10	4	13	20	14	8	8	15
운영학교 수	10	26	26	30	43	47	50	55	50	44
누적학교 수	10	26	36	40	53	73	87	95	103	118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지역별 지원현황]**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세종	계
7기('16~'19)	-	-	-	-	-	-	-	1	1	4	1	1	1	2	2	-	-	13
8기('17~'20)	-	-	-	-	-	-	-	2	-	1	1	1	-	1	1	1	-	8
9기('18~'21)	-	1	-	-	-	-	-	1	1	1	1	1	1	-	-	-	1	8
10기('19~'22)	-	-	-	-	-	-	-	2	3	2	2	1	3	1	1	-	-	15
<b>계</b>	<b>0</b>	<b>1</b>	<b>0</b>	<b>0</b>	<b>0</b>	<b>0</b>	<b>0</b>	<b>6</b>	<b>5</b>	<b>8</b>	<b>5</b>	<b>4</b>	<b>5</b>	<b>4</b>	<b>4</b>	<b>1</b>	<b>1</b>	<b>44</b>
<b>7기 제외*</b>	<b>0</b>	<b>1</b>	<b>0</b>	<b>0</b>	<b>0</b>	<b>0</b>	<b>0</b>	<b>5</b>	<b>4</b>	<b>4</b>	<b>4</b>	<b>3</b>	<b>4</b>	<b>2</b>	<b>2</b>	<b>1</b>	<b>1</b>	<b>31</b>

※ 7기는 2019년 지원 종료 예정

**[분야별 지원현황]**

분야	공예	디자인	만화 애니메 이션	사진	무용	뮤지컬	연극	영화	국악	서양악	기타*	계
7기('16~'19)	1	1	2	-	-	2	-	-	2	2	3	13
8기('17~'20)	-	1	-	-	1	2	1	-	-	2	1	8
9기('18~'21)	-	1	-	-	-	2	-	1	1	2	1	8
10기('19~'22)	1	-	-	-	-	2	-	-	1	6	5	15
<b>계</b>	<b>2</b>	<b>3</b>	<b>2</b>	<b>0</b>	<b>1</b>	<b>8</b>	<b>1</b>	<b>1</b>	<b>4</b>	<b>12</b>	<b>10</b>	<b>44</b>
<b>7기 제외</b>	<b>1</b>	<b>2</b>	<b>0</b>	<b>0</b>	<b>1</b>	<b>6</b>	<b>1</b>	<b>1</b>	<b>2</b>	<b>10</b>	<b>7</b>	<b>31</b>

※ 기타 : 전통문화, 커뮤니티 아트, 생태미술, 통합 등

**[교급별 지원현황]**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7기('16~'19)	10	3	-	-	13
8기('17~'20)	8	-	-	-	8
9기('18~'21)	8	-	-	-	8
10기('19~'22)	9	4	1	1	15
<b>계</b>	<b>35</b>	<b>7</b>	<b>1</b>	<b>1</b>	<b>44</b>
<b>7기 제외</b>	<b>25</b>	<b>4</b>	<b>1</b>	<b>1</b>	<b>31</b>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그림 IV-5] 예술꽃 씨앗학교 2019년 지역별·분야별·학교급별 지원현황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예술기반 학교의 전형적인 사례로 문화예술중심의 학교운영이라는 정체성과 학생·교사·학교·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적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소규모 학

교를 대상으로 4년간 집중 지원과 성장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기반의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자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화와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11>의 예술꽃 씨앗학교의 운영로드맵을 살펴보면 선정된 학교를 최대 4년간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자립형 학교교육 운영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표 IV-11> 예술 꽃 씨앗학교 운영 로드맵

연차별 목표 추진과제	1년차	2년차	3년-4년차
	기반조성기	성장기	확산 및 정착기
	<b>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 연계</b>	<b>학교별 문화예술분야 특화 운영</b>	<b>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정착화 및 지역 연계 강화</b>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도구 마련 및 교육환경 개선</li> <li>• 운영 장기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안 및 워크북 개발</li> <li>• 교사, 강사의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 마련</li> </ul>
교육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교육과정 재구성</li> <li>• 연계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강사 워크숍, 연구모임 동아리 운영 등</li> <li>- 문화예술 체험활동, 동아리 캠프 기획, 운영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교육과정 운영</li> <li>- 콘텐츠 활용 연계교육 설계 등</li> </ul>
지역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li>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운영</li> </ul>
성과관리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관련 네트워크 구축</li> <li>• 연간 활동 기록 (글, 사진, 영상 등)</li> <li>• 자체평가 방안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홍보 활동</li> <li>• 연간 활동 기록 (글, 사진, 영상 등)</li> <li>• 자체평가 방안 활용</li> <li>•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 마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홍보 활동</li> <li>• 연간 활동 기록 (글, 사진, 영상 등)</li> <li>• 자체평가 방안 활용</li> <li>• 구체적 자립화를 위한 연계 활동</li> </ul>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연계 협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운영관련 컨설팅</li> <li>• 사업 성과평가</li> <li>• 연수 및 관계자 워크숍</li> <li>• 주요사업성과 축적 활용</li> <li>• 대외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운영관련 컨설팅</li> <li>• 사업 성과평가</li> <li>• 연수 및 관계자 워크숍</li> <li>• 주요사업성과 축적 활용</li> <li>• 대외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운영관련 컨설팅</li> <li>• 사업 성과평가</li> <li>• 연수 및 관계자 워크숍</li> <li>• 주요사업성과 축적 활용</li> <li>• 대외홍보</li> <li>•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 공유회</li> <li>• 자립 방안 모색</li> </ul>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 3) 주요 성과

예술꽃 씨앗학교의 주요성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공교육 내 전교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소외지역 아동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국고로 4년간 안정적인 지원으로 전교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거점 학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소규모 학교와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셋째,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 접목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국악, 사양악, 영화, 뮤지컬, 연극 미술 등의 운영분야의 특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 분야 관련 상을 수상하였다. 넷째, 11년간 지속적인 사업 운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와 전문성, 체계성을 갖춘 전문가 및 교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의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그 성과를 요약하면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예술꽃 씨앗학교 우수 학교 사례 성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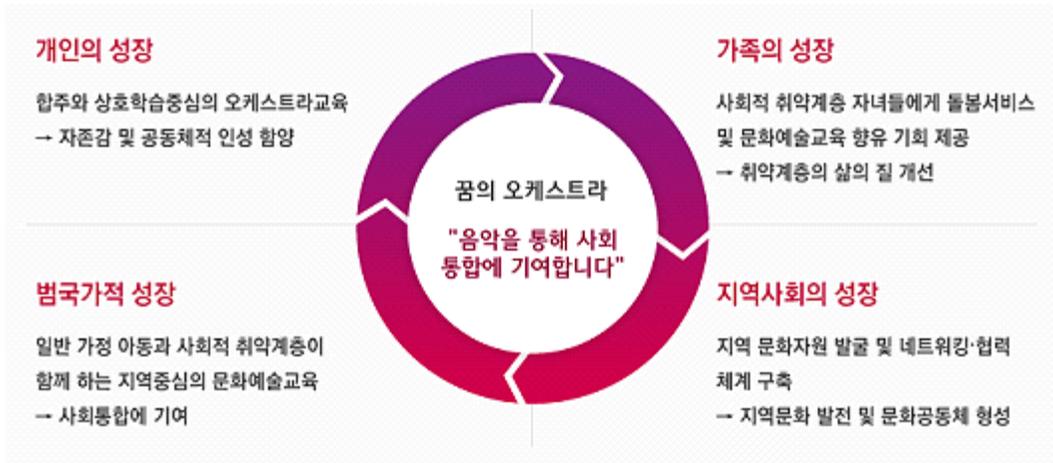
구분	내용
학교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티칭 형식의 수업 진행</li> <li>▪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설계</li> <li>▪ 예술 장르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li> </ul>
역량 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li> <li>▪ 교·강사 협의회를 통한 서로의 역할 수행 확인</li> <li>▪ 공동체예술교육연구회 구성을 통한 학교 조직 역량 강화 활동</li> </ul>
자산의 축적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li> <li>▪ 풍부한 인력 자산 구축</li> <li>▪ 멘토링 시스템과 교안 보유 등의 자체 유·무형 자산 축적</li> </ul>
지속·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지속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개설</li> <li>▪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확보</li> <li>▪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인수인계 방식</li> </ul>
지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공동체 만들기</li> <li>▪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과의 적극적인 연계</li> <li>▪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활동 및 특색 프로그램 개설</li> </ul>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 다. (사례2)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 1) 목적 및 추진방향

꿈의 오케스트라는 소외아동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양극화가 지속되는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스스로 삶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예술의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호학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다면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단원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공유를 통해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변화와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IV-6].



출처 :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그림 IV-6]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의 목적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영재를 육성하는 교육과 달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며(박신의, 2012),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째, ‘음악을 위한’이 아닌 ‘음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

를 추구한다.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한다. 둘째,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적 기반의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기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율이 연중 7:3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사회적·가정적 돌봄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돌봄 및 격려기제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셋째, 행정주체와 교육주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거점기관의 성장을 도모한다. 넷째, 음악을 통한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한다. 다섯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을 구현한다. 즉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 지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가 자립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목적과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한국형 엘시스테마를 지향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교육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수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 2) 거점기관 역할 및 현황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이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 능력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적인 엘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은 엘시스테마의 지역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하고 추진하며, 연간 정기교육 및 연주회, 특별프로그램 등의 안정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엘시스테마 교육이 보급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IV.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교육운영	행정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인력 확보 및 관리</li> <li>- 이동 단편 관리 및 행동 관리</li> <li>-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li> <li>- 교육 활동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 조직 체계 구성</li> <li>- 교육 공간 및 악기 확보</li> <li>- 학부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발전 계획 도출 및 실행</li> <li>- 미래 자원 확보</li> <li>- 사업 수행 조직의 지속성 확보</li> <li>- 외부 후원 조직의 지속성 확보</li> <li>-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li> </ul>

출처 :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그림 IV-7]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주요 역할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운영 로드맵은 [그림 IV-8]과 같으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49개의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그림 IV-8]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로드맵

<표 IV-13>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기관 현황

구분	현황	
1기(2011~)	5개	부천문화재단(경기), 부산문화재단(부산), 춘천시문화재단(강원), 익산문화재단(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
2기(2012~)	8개	성동소울아트센터(서울), 군포문화재단(경기), 원주문화재단(강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문화재단(충북),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전북), 무안희망의오케스트라단(전남), 목포문화재단(전남), 꿈의 오케스트라 안동(경북)
3기(2013~)	13개	성북문화재단(서울),수성문화재단(대구), 광주남구문예회관(광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기), 안산문화재단(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

구분	현황	
		(경기), 평택문화원(경기), 강릉문화원(강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강원), 아산문화재단(충남), 장수문화원(전북), 포항시문화예술회관(경북), 창원문화재단(경남)
4기(2014~)	6개	마포문화재단(서울), 구로문화재단(서울), 유성문화원(대전), 오산문화재단(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경기), 통영국제음악재단(경남)
5기(2015~)	2개	홍성군청소년수련관(강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영주지회(경북)
6기(2016~)	6개	충남문화재단(충남), 세종문화원(대전), 인재군문화재단(강원), 평창문화원(강원), 용인문화재단(경기), 창녕군청소년수련관(경남)
7기(2017~)	3개	영원문화재단(강원), 고창문화원(전북), 부산동구문화원(부산)
8기(2018~)	3개	남양주도시공사(경기), 하남문화재단(경기), 충주중원문화재단(충북)
9기(2019~)	3개	중구문화재단(서울), 김해문화의전단(경남), 소촌아트팩토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광주)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 라.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금까지 소개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외에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4> 국내 소외계층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96개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 분야(무용, 음악, 미술, 영화)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 및 창작,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아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평소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미디어 등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교정시설 수형자와 소년원학교 재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부여하고, 교정에서 자율적인 교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명	내용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비행 초기 인성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및 정신질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성 증진과 사회성 개발, 올바른 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가출·자립·탈학교 등)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치유와 자신감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이동형 문호예술교육 지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평소 문화예술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아동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통합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심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4.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동적인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문화적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 정서적 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예술교육의 질적 제고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학교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을 전담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 지원 및 성과 분석, 학교예술교육 지원 연구 및 자료 개발, 학교예술교육 포털 운영 및 홍보 등의 실제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표 IV-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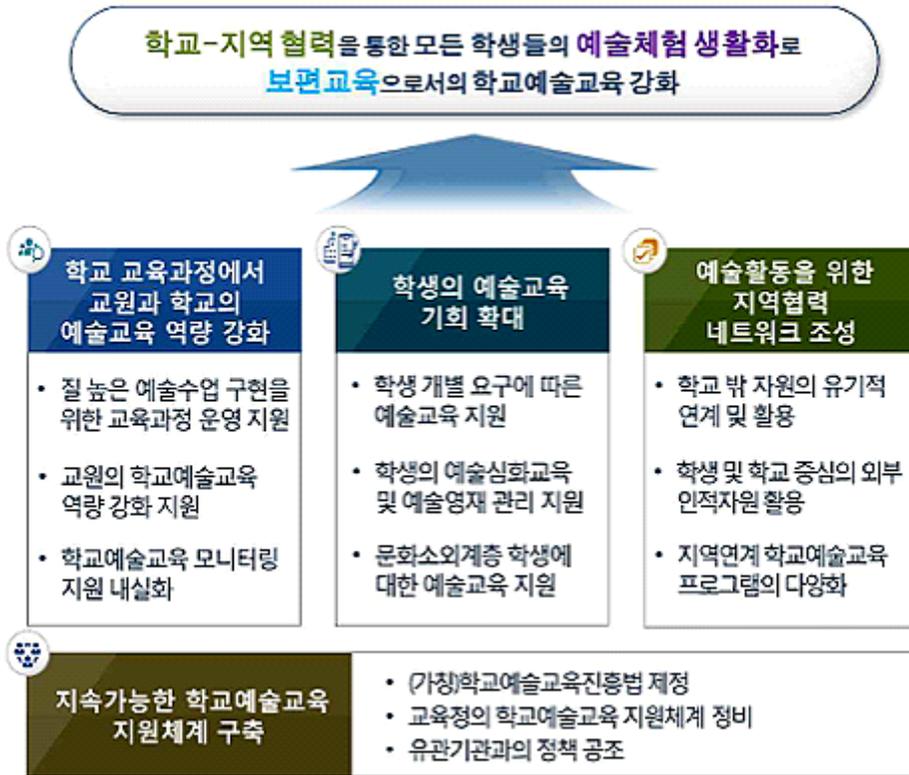
<표 IV-15>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내용(안)

사업명	내용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드림거점학교 및 예술중점학교, 예술이음모델 연구학교 지원</li> <li>▪ 예술진로 페스티벌 및 학교예술교육 한마당 개최</li> <li>* 예술교과(교육) 연구회 등과 협력 방안 모색 등</li> <li>※ 예술중점학교 및 예술드림거점학교 컨설팅단 구성 운영</li> </ul>
성과 분석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li> <li>▪ 정책적 환류 지원과 성과공유를 위한 홍보 내실화</li> <li>▪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li> </ul>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업무담당자 정책연수회</li> <li>▪ 학교예술교육포털 고도화 및 운영</li> <li>▪ 예술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력 추진</li> <li>※ 학교예술교육포털에 예술교육 프로그램 페어에서 검증된 정보 공유 코너 마련</li> </ul>

### 가. 학교예술교육 추진방향 및 과제

지난 2019년 1월에 수립된 「2019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의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은 학교와 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들의 예술체험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강화를 목적으로 ①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②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③ 예술 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④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 4가지 중점과제와 이에 따른 12가지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그림 IV-9]



출처 : 2019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교육부)

[그림 IV-9] 2019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세부 과제 중 예술영재교육 관련 정책인 ‘학교 예술심화교육 및 예술영재 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편적 예술교육의 일부로서 심화교육 및 영재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예술중점학교와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운영한다. 예술중점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내에 예술심화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교육기부 거점대학은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 교육기부 연계 및 영재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거점대학 선정·운영 시 저소득층 대상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으로는 지역예술교육 전문기관을 예술영재교육과정 위탁기관으로 발굴·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예술인재 지원을 위한 꿈사다

리 교육위탁기관을 음악·미술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인재에 대한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실행에 있어 연계할 수 있는 정부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나. (사례)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는 경제·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지역 간 교육투자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과 지역의 여건이 교육 조건으로 작용하여 교육기회 조차 불평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교육부, 2018).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은 보통 대학생 학비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넘어,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개척을 중학교 단계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학제도를 마련하였다.

### 1) 운영 개요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는 학업의지가 높고 예술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대 4년간 월 30만원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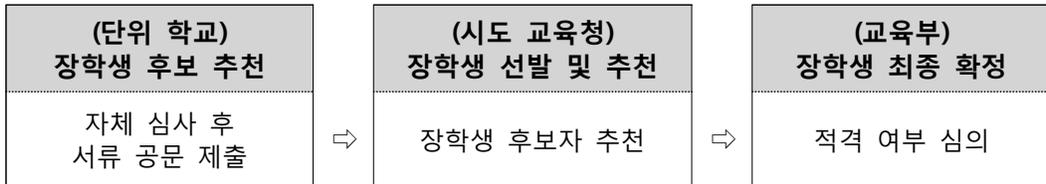
<표 IV-16>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추진 체계

구분	내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부금 교부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li> </ul>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운영 계획 수립</li> <li>▪ 장학생 심사</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 지급 및 관리</li> </ul>
운영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캠프 운영 등 사업 운영 지원 (음악)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미술) 서울대학교사범대학</li> </ul>
단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장학생 추천</li> <li>전담교사 지정, 점검·지도 등 맞춤형 지원</li> </ul>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학생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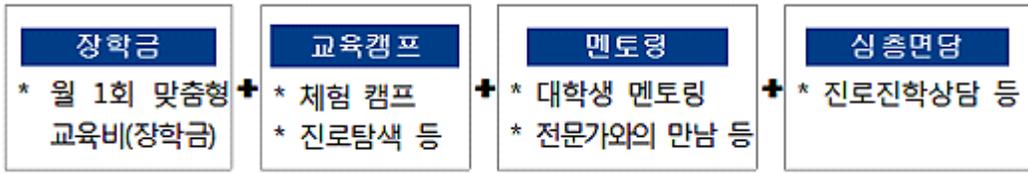
<표 IV-17>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학생 선발 절차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단위 학교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장학생 후보를 추천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인성, 성장가능성, 우수성, 지원필요성 등의 구체적인 선발 기준 및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는 꿈사다리 운영심의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때, 단위 학교에서 장학생 후보 추천 시 학교장은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해야 한다.

## 2) 지원 내용 및 방법

예술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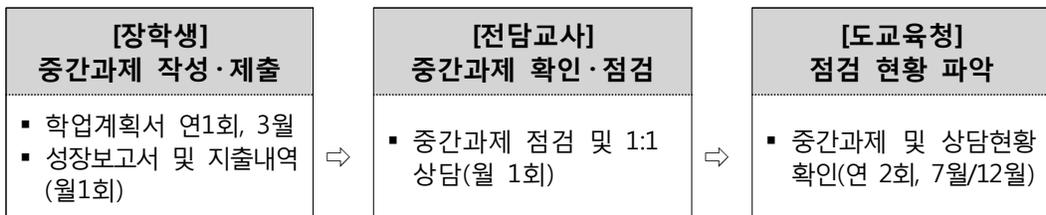


[그림 IV-10]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지원 내용

첫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대 4년간 매달 30만원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학부모 명의의 계좌가 아닌 학생의 교육급여 등 수급계좌 또는 학생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장학금은 학업 계획 및 미래 설계에 따라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의 지도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장학금은 주로 실기·실습재료, 도서, 각종 대회 응시, 공연·전시회 관람, 미래를 위한 저축 등 진로개척을 위해서 활용된다. 장학금 관리를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등의 전담교사는 학업, 진로설계 등 학교생활 전반과 장학금 지출활용 등에 대해 년 2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학생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꿈사다리 캠프를 통해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주 1~2회 진로 및 학업상담 등의 멘토링을 실시한다. 넷째, 진로진학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제공한다.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표 IV-18>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한다.

<표 IV-18>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관리·점검 사항



<표 IV-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학업계획서와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에 해당하는 중간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학업계획서는 신규 장학생을 제외한 계속 장학생은 학업, 진로탐색,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3월에 제출한다. 이후 장학생의 성장·발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학금 사용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사항을 매월 기록한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을 매월 제출하도록 한다. 전담교사는 장학생이 작성한 중간과제를 기반으로 매월 1:1 상담을 실시하는 데 이때, 가급적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방학 등 학사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전담교사는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업계획 등에 따라 장학금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며, 상담 과정 중에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은 시도교육청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은 전체 장학생의 중간과제 제출 현황 및 상담 결과 등을 7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파악하는 데 이 때 중간과제 제출 횟수, 상담 일자, 상담 내용, 활동 지원 방안, 학생 성장 정도 등 유선 및 현장 방문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장학생으로서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시도교육청은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중단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중단을 결정한 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지원 중단이 결정된 후 이전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나 허위로 법정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장학생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지원 중단 학생 발생 시 대체 선발하되 선발 방식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 [예술꿈사다리 장학생 지원 중단 사유(안)]

-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학기 이상 휴학할 때
  - 학교장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할 때
  - 학업계획서,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을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 무조건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유예기간 설정 등 개별상황을 세심히 고려하여 판단
  - 장학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학부모 개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 예술분야의 진로 선택의 변화가 생겨 지원의 의미를 상실하였을 때
  -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
- 

## 5. 시사점

국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사례 분석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굴하고 그 재능이 발현되려면 반드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영재키움프로젝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잠재영재를 선발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최소 3년, 최대 9년간을 지원하며 한번 선발된 참가자는 학년의 바뀔 때마다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 또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대 4년간 장기적·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시 실기평가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선발 및 교육사업과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의 실기평가 지침을 살펴보면 부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대부분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 경험이 부족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단계에서 높은 실기수행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숨어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의 멘토링, 방학 중 집중캠프, 문화예술체험,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이 때 해당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 시 멘토교사 선발 기준 및 멘토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 중 예술꿈사다리 장학제도에서 참가자들에게 대학생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학생멘토에 대한 선발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전·사후 교육에 대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성과 및 평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국가 영재교육연구기관인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운영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추진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성과 평가 및 공유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예술 꽃 씨앗학교 또한 성과관리 항목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소외계층을 대상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숨어있는 잠재성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대부분은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양질의 문화예술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이승진(2017)은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활용한 역량평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예술적 자극과 풍부한 예술교육환경으로 구성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공 전 후의 향상정도를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여기에서 잠재적 재능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특성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들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재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의 기본 방향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의 4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Ⅰ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의 4대 기본 방향 Ⅰ

1. 단기적 관점 → 중·장기적 관점
2. 일률적 지원 → 개인별 특성 및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3. 결핍에 대한 지원 → 잠재역량 계발에 중점을 둔 예술영재교육
4. 예술전문인 양성 → 예술창의인재 양성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들은 주로 일회성 단기캠프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1년 단위로 학생들을 다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는 사회적 배려대상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과 영재성으로 인한 인지적·비인지적 특성 그리고 예술가들만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또는 단기 지원만으로는 잠재된 재능 발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교육은 반드시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처한 환경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예술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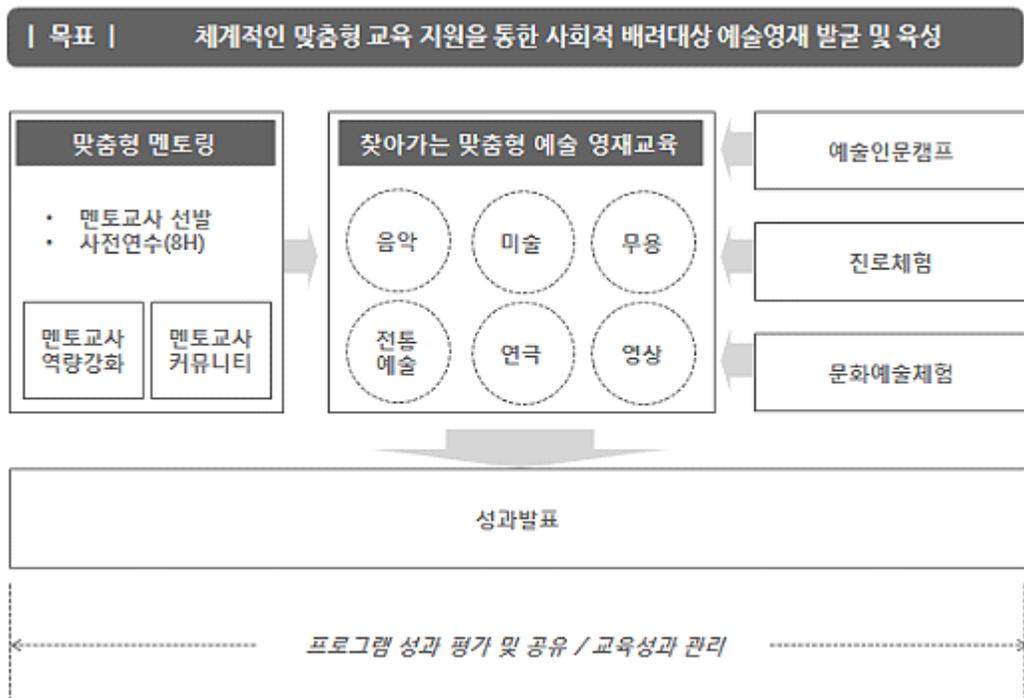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겪는 어려움과 영재의 특성, 예술가의 특성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특성 및 요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교육은 이들의 결핍에 초점을 맞춰 예술을 통해 그 결핍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의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일반학생들 보다 부족하거나 결핍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조금 다르지만 잠재적 재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교육은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잠재역량 개발에 중점을 둔 지원을 제공한다.

넷째,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사회에 가치 있는 산물을 창출하고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갈 리더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영재교육은 직업 예술 실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과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교육’보다는 직업 예술전문인 양성을 위한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예술영재 분야에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영재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이유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가의 개인레슨이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영재교육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직업 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과 차별화된 예술창의인재 갖추어야 할 역량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방안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모형은 [그림 V-1]과 같으며, 모형의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 가. 선발 및 운영개요

참가자 선정 기준에 있어 첫 번째 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명시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즉, ‘교육급여 수급권자,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두 번째 기준은 각 예술 분야에 잠재적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배려대상에 속한 학생들은 양질의 문화예술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경험도 없어 예술적 기능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 정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기능보다는 동기와 열정에 중점을 두고 선발하여 그들이 예술영재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했던, 예술 꽃 씨앗학교나 꿈의 오케스트라 등 소외계층을 대상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평가 방식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 나. 찾아가는 맞춤형 예술영재교육

본 지원체제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음악, 미술, 무용, 전통예술 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상분야도 포함시켰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멘토를 선정하여 학생-전문가멘토를 1:1로 매칭하여 정기적(주 1회 또는 월 2회)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바로 실기교육이 가능한 장소의 문제와 악기 등과 같은 장비의 공급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예술대학이나 예술중·고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참가자나 전문가멘토가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고 본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운영기관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 다. 맞춤형 멘토링 지원

멘토링은 멘토(교사)와 멘티(학생)간에 장기적인 만남을 갖는 활동(김경준 외, 2012)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이라 함은 학생의 특성 즉, 예술분야, 세부전공,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멘토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관련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대처능력, 관계형성능력 등

을 두루 갖춘 우수한 멘토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예술분야 멘토교사 양성 기초과정, 전문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각각 60시간, 12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소한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멘토교사 인증제를 활용하여 멘토풀을 관리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증이 만료되어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상에 멘토교사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멘토교사들 간 원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멘티와 멘토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멘토링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한 멘티들을 잘 교육시켜서 멘토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멘토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의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라. 방학 중 캠프

방학 중 캠프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지정된 장소에 모여 2박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적 창의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캠프 장소는 캠프활동 시설과 숙소가 같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원활한 캠프 운영을 위해 5~10명의 학생들을 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별로 1명의 대학생멘트(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예술전공 대학생)를 배정하여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캠프 활동에 포함할 수 있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1> 방학 중 캠프 활동 구성(안)

구분	내용
융합예술 프로젝트	팀별 프로젝트 수행 후 발표
명사특강	예술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과학, 인문학, 심리학 등)
진로멘토링	전문가 멘토링(분야별 전문가 초청)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 공연 관람

### 마. 진로체험

진로체험 활동은 멘토가 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체험해 보는 활동이 아니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활동은 멘토-멘티가 1:1로 진행하거나 다른 멘토-멘티 팀과 공동(3팀 이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진로체험 활동 절차는 <표 V-2>와 같다.

<표 V-2> 진로체험 활동 절차

구분		내용	담당
1단계	브레인스토밍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멘토-멘티
2단계	계획	진로체험 계획서 작성 장소 및 교통편 예약 전문가 면담 요청(면담지 사전에 작성)	멘토-멘티
3단계	진로체험	진로체험의 날	멘토-멘티
4단계	보고서 작성	브레인스토밍 활동결과지 1부 진로체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1부	멘티

진로체험 활동 진행 시 유의할 점은 멘티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멘토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멘티가 현재의 나의 모습과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이후 멘티의 활동과 일정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원하도록 한다.

### 바.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체험 멘토와 멘티가 함께 공연, 뮤지컬, 음악회, 연극, 페스티벌 등을

관람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 성과발표회

성과발표회는 본 프로그램의 년중 마지막 활동으로 멘토교사-학생-운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축제의 장이다. 우수사례 발표, 우수 멘토교사 및 멘티 시상 등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나와 동료들이 성장한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다가오는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이다.

### 아.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공유 / 교육성과 관리

프로그램 성과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활동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활동이다. 한편 교육성과 관리는 학생들의 성과를 관리하는 활동으로 멘토교사들이 관찰기록지와 개별 포트폴리오 등의 데이터를 성과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여 멘토교사가 변경되더라도 학생 정보가 다음 멘토교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을 검증해보고 검증 결과는 차년도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한다.

### 3.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국고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경우 매년 수·과학, 발명, 인문사회 분야 소외계층 영재 400여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100억의 국고예산이 확정되어 운영 중이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처 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중 잠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재학생들에게는 심화·속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체험, 멘토교사교육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멘토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체제에서 멘토교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술전문 기능과 기술 뿐만 아니라 상담, 진로체험, 문화체험 등 학생들은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멘토와 함께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위해서는 예술분야, 세부전공,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멘토를 찾아 연결해 주어야 하지만, 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서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대처능력, 관계형성능력 등을 갖춘 우수한 멘토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술멘토 인증제도’를 통해 해당 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정해진 일정 시간을 이수하면 ‘예술멘토교사’로 인

증받고 멘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멘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정 인력을 활용한다는 안정적으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예술분야는 수·과학 등의 다른 분야와 달리 기본 시설과 악기 등의 장비가 구비되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내 해당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민관 기관이나 대학교, 예술 중·고등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멘토 교사가 지역 내 예술가나 예술전문가 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DB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학부모 대상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에 속한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에 평일 낮에 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부모교육을 통해 영재와 영재성 그리고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특성과 예술영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는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해서 문헌연구 결과만으로 그들의 다양한 변인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체제 모형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려면 예술영재교육 관련 멘토교사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멘토교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멘토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는 제한된 연구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타당화 및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시된 지원 체제 모형의 타당화와 구체화를 위한 정교화를 위한 추가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들이 각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아쉬운 점은 각 부처 간·유관기관 간 해당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질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후 사회적 배려대상 관련 연구 수행 시 관련 부처나 기관 담당자들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직 (2011). **해외 영재교육 사례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강주희 (2012). **시각예술영재성의 재개념화: 미술교육의 흐름에 비추어 본 시각예술 영재성의 의미 변화 고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8). **미술영재교육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권도희, 정수년, 이진원 (2008). **사례를 통한 전통예술 분야의 영재 개념 및 선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국무조정실 (2011). **영재교육 심층분석**. 2016. 11.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복지종합계획**.
- \_\_\_\_\_ (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_\_\_\_\_ (2012). **자율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방안**.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_\_\_\_\_ (2018).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_\_\_\_\_ (20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 기획재정부 (2017).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 김미숙 (2008). 한국의 영재교육 정책과 새 방향: 프로젝트 S&S(Stand & Shine). **소외 계층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19-115,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송인섭, 이정규, 이승희, 이홍란 (2007). **영재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영재 교육기관, 학교,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서지연, 김영아, 이희현, 전정민, 한은주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젝트 S&S : 선발도구와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아 (2017a).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7b).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개발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성혜 (201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4).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 잠재성 발굴을 위한 수업사례 고찰 연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6).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성혜, 이경진 (2014).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의 환경요인 특징 탐색, **영재교육 연구**, 24(4), 629-655.
- 김정희 (2005). **미술영재이야기**. 서울: 학지사.
- \_\_\_\_\_ (2017). 미술영재성 발현 변인에 대한 사례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48, 77-100.
- 김정희, 강병직 (2011). **미술영재교육학**. 서울 : 학지사.
- 김지혜 (2016). 소외계층 음악영재를 위한 선발 방향 제시. **이화음악논집**, 20(1), 69-107.
- 김춘미 외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춘일 (2004).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개선. **조형교육**, 24, 31-53.
- 김혜숙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소고. **한국창의력교육학회**, 9(2), 127-143.
- 김한양, 백운철 (2011).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2(2), 133-163.
- 류지영 외 (2016). **미술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류지영, 김미진 (2017). 소외계층 잠재적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효과. **영재 교육연구**, 27(4), 527-546.
- 문태영 (200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영재아동의 이해와 중재. **중복·지체부자유아 교육**, 45, 65-79.
- 박명옥 (2017). 미술영재의 통섭적 사고 연계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29-46.
- 박숙희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8(3), 5-21.
- 박효정, 장수정, 이재덕, 김한나 (2014).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단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서예원 외 (2011).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영재키움 프로젝트 추진 계획**. 2018. 4.
- 석문주 (2015).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진입(bridge) 프로그램 개발: 음악분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성경희 (2003). **한국에서의 음악영재 발굴과 교육의 방향**. 음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 \_\_\_\_\_ (2005). 예술·문화기반 사회와 음악영재교육. 한국예술영재학회(편), **예술영재 교육: 예술영재의 특성과 교육의 방향**. 서울: 미진사.
- 신혜경, 정진원 (2012). 음악영재교육을 위한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 **음악교육 연구**, 41(1), 25-59.
- 원영실 (2011). 음악(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및 적용. **음악영재교육**, 40(1), 241-273.
- \_\_\_\_\_ (2012).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OSPG)의 구인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2(1), 61-85.
- \_\_\_\_\_ (2013).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구인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3(1), 1-24.
- \_\_\_\_\_ (2013). **예술영재성의 판별에 관한 고찰 연구: 음악, 전통예술, 무용, 미술 분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5a). **전통예술영재의 특성 및 발현 배경 탐색-한국예술영재교육원 전통 예술영재 follow-up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5b). **음악(전통음악) 영재 선별용 영재 자기진단 평가문항 개발**. 한국 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 (2005). 무용영재성의 요인탐색. **한국체육 학회지**, 44(4), 745-752.
- 오레지나 (2009). 무용영재 판별을 위한 실기과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0(1), 1-15.
- 우주희 (2002). 한국 미술영재교육의 가능성과 과제. **미술교육논총**, 15, 121-164.
- 유진, 조경아 (2006). 무용수행의 재능발달 요인: 수준별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4), 29-42.
- 이선영 (2010).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도구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경 (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미경, 강병직, 조주현, 홍소영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연구(I)**.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 소외 영재 교사의 영재 및 영재교육에 대한 지각분석. **한국교육**, 33(4), 97-120.

- 이신동, 이경숙 (2017). 국외 소외계층 영재 선발도구 요인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6(1), 23-45.
- 이승진 (2017).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선발 다양화 방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승진, 이유진, 최선일 (2018). **예술꿈나무 교육인력 소외계층 선발역량 강화 기반 구축-심리·정서멘토링 체제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용애 (2002). 시각예술영재성 개념 모델의 탐색. **초등교육학연구**, 9(1), 21-36.
- 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09).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 follow-up 연구: 예술영재성의 발현 배경에 관한 탐색**.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희현 (2017).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진호 (2010). **무용영재성 평가범주 개발**. 한국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1).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개발**. 한국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12).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 개발**. 한국영재교육연구원.
- 이재분, 유경재, 여승수, 김아름 (2011). **소외계층 영재학생 사례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이미순, 정현철, 황동주, 이현주 (2006). **소외된 과학영재 발굴 및 교육방안 : 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조은숙 (2003). **발레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주연 (2007). 발레 영재성 구성요인의 탐색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15-31.
- 주현준, 오세희 (2011).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제도에 대한 교원 인식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213-135.
- 정경아, 정해숙, 권오남 (2004). **중등학생의 수학에서의 성별 격차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
- 정희자 (2004). 발레영재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무용학회**, 21, 43-62.
- 최은식 (2003). 음악영재. **예술영재교육육성 계획연구**, 한국예술연구소.
- 하태정, 강현아 (2012). 가족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지역 사회 환경과 부모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0, 139-167.
-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19. 4월 기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국가별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
- \_\_\_\_\_ (2015a).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_\_\_\_\_ (2015b).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 \_\_\_\_\_ (2019). 2020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신규 운영학교 공모 설명회 자료집(2019. 9. 24).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19). 2019년도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모집 요강.
- 한기순, 신정아 (2007). 성취영재와 미성취영재는 어떻게 다른가? 학습전략, 동기, 능력신념, 그리고 문제해결성향의 차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17(1), 27-50.
-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강구섭, 김일혁, 이향규, 김윤영, 이은구, 김보라 (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검토: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 복지학*, 17, 151-177.
- 한수연, 박우룡 (2009).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시각예술에서의 기초 예술성을 중심으로. *영재와 영재교육*, 8(2), 149-170.
- 한수연, 호사라, 정진원, 김정희, 장인주, 권용선, 김경대 (2006). *예술영재 교육과정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한수연 외 (2008). *예술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II): 시각예술분야*. 한국예술영재 교육연구원.
- Banks, J. A. (1993).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L. Darling-Hammond (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pp. 3-49).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Berger, Roland (2009): Vorstellung der Stipendiaten. <http://www.rolandbergerstiftung.org/de/presse/bildungsfoerderung/hintergrundmaterial.html?start=15>
- Bos, W. , Lankes E.M., Prenzel, M., Schwippert, K., Walther, G., Valtin, R. (Hrsg.) (2003). *Erste Ergebnisse aus IGLU*. Schülerleistungen am Ende der vierten Jahrgangsstuf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Münster: Waxmann.
- Clark, G., & Zimmerman, E. (2004). *Teaching talented and art students: principles and practice*. New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Colangelo, N., Assouline, S. G., Baldus, C. M., & New, J. K. (2003). Gifted education in rural school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3rd ed., pp. 572-581). Boston: Allyn & Bacon.
- Csikszentmihalyi, M. (2003). 창의성의 즐거움 [노혜숙 역], 서울: 북로드. (원저출간년도: 1996).
- Duncan, G. J., & Brooks-Gunn, J.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merick, L. J. (1992). Academic underachievement among the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f factors that reverse the pattern. *Gifted Child Quarterly*, 36(3), 140-146.
- Fischer, Christian (2009). Begabtenförderung im deutschsprachigen Europa Ein Überblick.: In Dokumentation „Wir machen Schule schlau!“ Kongress 2009, Hamburg. S. 20-25.
- Fox, L., Tobin, D., & Schiffman, G. (1983). Adaptive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learning disabled/gifted children. In L. Fox, L. E. Brody, & L. D. Tobin (Eds.). *Learning-disabled/gifted children* (pp. 183-194),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 Gagné, F. (2003). Transforming gifts into talents: the DMGT as a development theory. In Colangelo, N. & Davis, G. A.(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rd edition. Boston: Allyn: Bascon, 60-74.
- Giesinger, Johannes (2008): Begabtenförderung und Bildungsgerechtigkeit. In. *Ullrich, Heiner/ Strunck, Susanne (Hrsg.): Begabtenförderung an Gymnasien*, 271-289.
- Gomolla, M. & Radtke, F.-O. (2002). *Institutionelle Diskriminierung: Die Herstellung ethnischer Differenz in der Schule*. Opladen.
- Gordon, E. (1988).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Chicago, IL: The Riverside Publishing Co.
- Heller, K. A. , & Perleth, C. (2007). *MHBT-P. Münchner Hochbegabungstestbatterie für die Primarstufe* [Munich Test Battery for the assessment of giftedness – Primary school level]. Göttingen: Hogrefe.
- Hoh, P.-S. (2008).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J. A. Plucker & C. M. Callahan,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s* (1st ed., pp. 57-83). Waco, TX: Prufrock Press.
- Kindler, A. (2010). The meaning of giftedness in the arts in *the changing contexts of the 21st century*. KRIGA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94.
- Noble, K. D. (1989). Counseling gifted women: Becoming the heroes of our own stori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2, 131-141.
- Pariser, D. (1997). Graphic development in artistically exceptional children. In A. Kindler (Ed.). *Child development in art*. Reston, VA: NAEA. 115-131.
- Reis, S. M., & McCoach, D. B. (2000). The underachievement of gifted students: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go? *Gifted Child Quarterly*, 44(3), 152-170.
- Seashore, C. E. (1939). Seashore measurement of musical talent. *New York, revidierte Fassungen*, 1956, 1960.
- Tileston, D. W. (2004).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about: Diverse learner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Van Tassel-Baska, J. (2003). *Content-based curriculum for high-ability learners: An introduction*. Waco, TX: Prufrock Press.
- Van Boxtel, H. W., & Mönks, F. J. (1992). General, social, and academic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2), 169-186.
- Wallace, B. (2000). Able and talented learners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communities. In *Meeting the social and emotional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pp. 99-118). London: David Fulton.
- Webster, P. R. (1989). *Measures of Creative Thinking in Music: Administrative Guidelines*, Unpublished Manuscript, School of Music, Northwestern University.
- Yewchuk, C., & Lupark, J. L. (1993). Gifted handicapped: A desultory duality.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Oxford: Pergamon.
- Ziegler, A., & Heller, K. A. (2000). Attribution retraining with gifted girls. *Roeper Review*, 23, 217-248.

---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방안

---

<b>발행인</b>	남수영
<b>발행일</b>	2019년 11월
<b>발행처</b>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b>홈페이지</b>	<a href="http://kriga.karts.ac.kr/">http://kriga.karts.ac.kr/</a>
<b>주소</b>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b>전화</b>	02-746-9537
<b>인쇄</b>	(주) 계문사(02-725-5216)
<b>ISBN</b>	979-11-85119-68-7 93370

---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필자와 저작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